

# November

#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5 11 vol.287




# Die Zauberflöte

Cover Story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오페라 '마술피리'  
반갑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부록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79 광복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광복70년 - 미래를 향하여



# BUSAN WORLD PHILHARMONIC ORCHESTRA

*The Classic* 아시아의 창(窓) 부산  
-Asia port Series-

예술감독 오충근  
Artistic Director Choong-Keun Oh  
작곡 박정양, 리체이  
Composer Jeong Yang Park, Lee Che-Yi

| 주 최 |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추진위원회

| 후 원 |  부산광역시  넥센월석문화재단 | 협 찬 |  BNK 부산은행  KWANG 조광페인트  HAEUNDAE GRAND HOTEL  영도 목장원

| 문 의 |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무국 [www.bwpo.co.kr](http://www.bwpo.co.kr)  KNN 051-850-9333 [www.knn.co.kr](http://www.knn.co.kr)

\*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은 부산광역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시민을 위한 초대권은 KNN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PROGRAM**

리채이 | (BWPO 아시아의 창) 서곡 • Lee Che-Yi | BWPO 'Windows of Asia' Overture  
박정양 | 교향적 변주곡 (아리랑) • Park Jeong-Yang | Symphonic Variation 'Ari-rang'  
펜데레츠키 | 교향곡 제5번 (코리아) • K.Penderecki | Symphony No.5 'Korea'

2015. 11. 23. 월 7:3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Monday 7:30pm | November 23<sup>rd</sup> 2015 | Busan Cultural Center

The 46th Eulsukdo Masterpiece Concert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2014  
Korea Culture  
Year of Music  
문화융성

대륙의 자존심

# Xuefei Yang

양 | 쉘 | 페 | 이



## PROGRAM

- F. Schubert 눈물의 찬가, 세레나데
- N. Paganini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카프리스 제24번 a단조, Op.1/24
- J. S. Bach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파티타 제2번 d단조, BWV1004 중 샤콘느
- Á. Piazzolla 천사의 밀롱가 외

2015. 11. 06 (금) 저녁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예술감독 김원명

복권기금  
문화나눔  
www.ticketpark.com

주최 | 을숙도문화회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숙도문화회관 주권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부산원음방송,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입장료 | 2천원 관람연령 | 초등학교생 이상 문 의 | 051)220-5812 예 매 | 인터파크 1544-1555 www.ticketpark.com  
무대감독 | 이순재 조명감독 | 박병주 음향감독 | 신경범

을숙도명품콘서트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지원하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의 일부를 복권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 純粹 순수

예술감독 | 김원명

백승태 심터(Rest Area)

C. P. E. Bach Flute Concerto in D minor  
A. Dvorak Symphony No.8 in G major, Op.88



지휘 이효상



작곡 백승태

Flute | 오신정

2015. 11.12 목 오후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T.I.F 심포니오케스트라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입장료 | 2천원 관람연령 | 초등학교생 이상 문의 | 051)220-5812 예매 | INTERPARK 인터파크 1544-1555 www.ticketpark.com  
 총제작 | 김일택 총괄기획 | 공영식 홍보 | 남수현 무대감독 | 이순재 조명감독 | 박병주 음향감독 | 신경범

※ 본 공연은 부산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합니다.  
 을숙도문화회관서드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지원하는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지방국공 문화공연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의 일부를 복권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부산시립합창단 제159회 정기연주회 및 제9대 수석지휘자 전상철 취임연주회 **Händel's** 헨델의 메시아 모차르트 편

# MESSIAH

2015.11.24 | 화 |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소프라노 김경희



메조소프라노 정혜미



테너 주종식



베이스 문동환



지휘 전상철  
(9대 수석지휘자)



오르간 유희정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교향악단

PROGRAM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 오라토리오 〈메시아〉 작품56 (모차르트 편)  
Georg Friedrich Händel Oratorio "Messiah" HWV.56 (Mozart Edition)

고문하 작사 김동수 작곡 부산시립합창단 제도막을 위한 헌정곡 〈부산의 하모니〉

\*참고: 모차르트판 오라토리오 HWV.56A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문의 홍보팀 607-3108 공연운영팀 607-3147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입장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 서울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지"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공연있는 날에 한함)



Cultural Story<sup>+</sup>

- 08 커버스토리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오페라 '미술피리'
- 10 11월 공연 캘린더
- 12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나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 14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오카다 토시키의 단편소설을 1인극으로  
-여배우의 혼\_이홍이
- 18 불멸의 거장 - 변박③  
동래의 화가 변박,  
일본에서는 그림보다 한시를 먼저 짓다\_강남주
- 20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게스트하우스, 다섯 그루 나무  
-골목 속의 작은 휴식처\_강기표
- 24 그곳에 가면  
이인아트홀
- 26 테마가 있는 여행  
지리산을 품은 하동 오감여행

Boards Inside<sup>+</sup>

- 32 프리뷰
- 38 리 뷰
- 40 프로그램 가이드

Center News<sup>+</sup>

- 59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60 새로 나온 책
- 61 새로 나온 음반
- 62 부산문화회관 소식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15년 11월호 통권 287호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120(주간), 051 607 6222(야간)

예술단 공연문의 051 607 3100 대관문의 051 607 6051~5

발행인 이승호 편집인 박원철 편집 백경옥 정복엽 발행일 2015년 10월 25일 인쇄처 호민디앤피 051 807 5100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오페라 마술피리

12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5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C석 2만원 [학생 B, C석에 한해 전화예매시 5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607-6065, 607-3100)



총감독·지휘 리 신치오



지휘 전상철



연출 표현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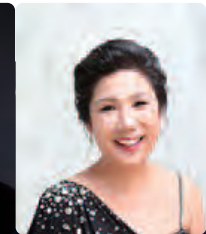
음악코치 손소향



소프라노 손가슬



테너 김병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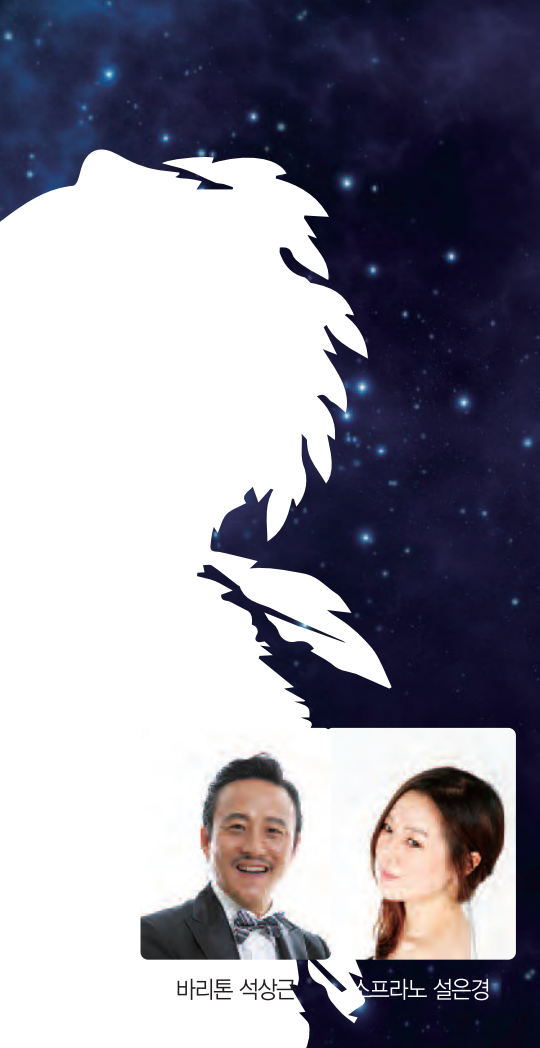
소프라노 박은주

부산문화회관이 특별 기획, 제작한 오페라 '마술피리'가 12월 4일과 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리 신치오가 총감독·지휘하고 섬세한 감각의 국립오페라단 출신 신연출가 표현진이 연출, 전 국립오페라단 수석 피아니스트 손소향이 음악코치를 맡은 오페라 '마술피리'는 '부산이 낳은 밤의 여왕' 소프라노 손가슬과 부산을 대표하는 소프라노 박은주 외에도 테너 김병오, 바리톤 석상근, 소프라노 설은경, 테너 문한솔, 베이스 박상진 등 최고의 성악가들과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 하는 부산문화회관만의 새로운 '마술피리'를 선사한다.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 작품으로 알려진 오페라 '마술피리'는 그의 천재성과 음악성이 집약된 작품으로, 타미노 왕자가 타미나 공주를 구하러 가는 긴 여정 속에 유쾌한 새잡이꾼 파파게노와 신기한 마술피리, 카리스마 넘치는 밤의 여왕과 지혜의 상징인 자라스트로가 등장하는 동화같은 이야기이다. 대사가 중심이 되는 징슈필(Singspiel) 오페라답게 연극적인 요소와 더불어 듣기 쉬운 음악들과 아름다운 아리아, 진지한 종교음악 등이 한 작품에 녹아 있어 오페라 팬들뿐만 아니라 초보자들도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시공과 세대를 초월하는 모차르트 특유의 감성과 유쾌함이 가득 담겨져 있어 연말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공연장을 찾을 수 있는 가족오페라로 인기가 많다.

오페라 ‘마술피리’하면 떠오르는 ‘밤의 여왕’은 부산 출신으로 독일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유럽 오페라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소프라노 손가슬이 맡아 화려한 무대를 선사한다. 지난 8월 부산시립교향악단 웰빙콘서트 시리즈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에서 비올레타 역을 맡아 부산 음악애호가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은바 있는 손가슬은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후 2004년 유럽으로 건너가 독일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음대와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음대,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대에서 성악과 오페라를 전공한 손가슬은 세계적인 명지휘자 Yakov Kreizbeg 지휘로 23세에 유럽 무대에 데뷔한 이래 세계 무대에서 정상급 프리마돈나로 활약해오고 있다.

또 한명의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박은주는 이번 무대에서 ‘파미나 공주’로 관객들과 만난다. 부산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쾰른국립음대 성악과 최고연주자과정을 마친 박은주는 브레머하펜 극장의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주역 오디션을 통해 데뷔한 후 브레머하펜 극장 주역가수로 활동하며 독일 평단과 관객들로부터 ‘최고의 소프라노’라는 찬사를 받아왔다. 1991년 에리카 콧트 성악콩쿠르 1위, 1994년 룩셈부르크 국제 콜로라투라 성악콩쿠르 장려상, 1998년 브레머하펜 관객상을 수상하기도 한 박은주는 지난 4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후궁으로부터의 도주’에서 주인공 ‘콘스탄체’ 역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은주는 지난 2010년부터는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자라스트로에게 잡힌 공주를 구하러 떠나는 왕자 ‘타미노’ 역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매력적인 음색과 탁월한 무대매너로 주목받고 있는 테너 김병오가 맡는다. 연세대학교,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성악과 전문연주자과정, 오페라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독일 감머오페라단과 데트몰트 주립극장 주역가수로도 활동한 김병오는 지난 2011년 창작오페라 ‘고집불통 옹’과 ‘아리아리랑’에서 주역을 맡아 입체적인 연기를 선보여 제4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타미노와 함께 공주를 구하러 가는 새잡이 ‘파파게노’ 역에는 유럽에서 활동하다 최근 귀국해 주목받고 있는 바리톤 석상근이, 파파게노와 사랑을 꽃피우는 ‘파파게나’ 역에는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설은경이, 파미나 공주를 감시하는 흑인 노예 ‘모노스타토스’ 역에는 부산의 떠오르는 신성 테너 문한솔이, 의로운 철학자 자라스트라 역은 부산을 대표하는 베이스 박상진이 호흡을 맞춘다. 벨리니국제콩쿠르 3위를 시작으로 자코모 아라갈, 비오티, 레온카발로 등 세계 유명 국제콩쿠르에서 일곱 차례 우승하며 유럽무대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은 석상근은 크로아티아 리예카오페라극장에서 오페라 ‘맥베스’ 주인공 역으로 유럽 무대에 데뷔한 후 독일 뮌스터극장 전속 솔리스트로 활동하며 ‘극장을 빛낸 최고 가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국립오페라단 ‘가면무도회’ 레나토 역으로 한국 무대에 데뷔한 석상근은 2013년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서 ‘운명의 힘’의 돈카를로 역으로 남자성악가상을 수상했다. 한양대학교와 독일 쾰른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독일 라인스베르크 국제콩쿠르 소프라노 부문 수상, 스페인 비냐스 국제콩쿠르 독일지역 대표로 선발된 소프라노 설은경은 지난 9월 동래문화회관에서 열린 오페라 ‘마술피리’에서도 파파게나 역을 맡아 호평받은 바 있다.

# 11

2015 NOVEMBER

## CULTURAL SCHEDULE

창경 海 부산



인터넷 예매



공연일정

☛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http://culture.busan.go.kr>을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DAY	MONDAY	TUESDAY
<p><b>1</b></p> <p><b>대</b>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 설립자 가경자선포 기념음악회 19:00 균일 1만원 (재)마리아수녀회 후원회(250-5406~10)</p> <p><b>중</b> 동의대학교 예술종합 콘서트바토리 한국음악과 제7회 정기연주회 '동의 新 풍류' 18:00 무료/염익준(010-3554-9396)</p> <p><b>소</b> 나무기타타기 정기공연 18:00 최호영(010-4284-2541)</p>	<p><b>2</b></p> <p><b>대</b> 제3회 월드브리지 필하모닉 정기연주회 with 부산의 특별한 가족들 19:30 25만원·20만원·10만원·5만원·3만원 월드브리지 필하모닉(010-3074-0366)</p> <p><b>중</b> 양경아 바이올린 독주회 19:30 균일 2만원/지클레프(02-515-5123)</p> <p><b>소</b>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제1회 반주전공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우리아트(920-9545)</p>	<p><b>3</b></p> <p><b>대</b> 2015년 대한민국-우크라이나 국제교류 음악제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기념 그랜드 갈라 콘서트' 19:30 7만원·5만원·3만원 김영근(010-9168-9434)</p> <p><b>소</b> 2015 SMR Entertainment 19:30 균일 1만원 SMR Entertainment(010-5715-6627)</p>
<p><b>8</b></p> <p><b>중</b> 롯데시 코믹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17:00 15만원·10만원·8만원·5만원·3만원 솔오페라단(1544-9373)</p> <p><b>소</b> 음반발매 기념 박성희 수궁가 완창발표회 16:00 2만원·1만원 박성희판소리연구소(583-0832)</p>	<p><b>9</b></p> <p><b>중</b> 김지민 피아노 리사이틀 '가을, 낭만 그리고 발라드' 19:30 초대/김지민(010-7442-7627)</p>	<p><b>10</b></p> <p><b>대</b> 제 96회 전국체전 해단식 및 2015 체육인의 밤 17:00 부산광역시 체육회(500-7900)</p> <p><b>중</b> 여성문화회관 '예술의 밤' 19:00 무료/여성문화회관(320-8331)</p>
<p><b>15</b></p> <p><b>대</b> 제47회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및 창단 20주년 기념 연주회 'Choral' 19:30 3만원·2만원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626-8081)</p> <p><b>중</b>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돈키호테 이야기' 17:00 초대 아트 어베뉴 컴퍼니(070-8200-8476)</p> <p><b>소</b> 제19회 새물결 춤 작가전 19:30 1만원·5천원 (사)부산무용협회(632-5116)</p>	<p><b>16</b></p> <p><b>중</b> 부산시립합창단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11:00 균일 2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48)</p> <p><b>소</b> Evolution 2015 19:30 부산예술대학교 실용무용과(627-7992)</p>	<p><b>17</b></p> <p><b>중</b> 부산시립합창단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11:00 균일 2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48)</p> <p><b>소</b> Evolution 2015 19:30 부산예술대학교 실용무용과(627-7992)</p>
<p><b>22</b></p> <p><b>중</b> 제3회 부산학생연합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음악회 18:30 균일 1천원 부산학생연합오케스트라(010-9984-7169)</p> <p><b>소</b> 연극 '로맨틱vs코미디' 19:00 균일 3만원 교육극단 놀이터(010-3274-5030)</p>	<p><b>23</b></p> <p><b>대</b> 2015 7th 부산월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회 'The Classic-아시아의 창 부산' 19:30 10만원·7만원·5만원 KNN(850-9333)</p> <p><b>중</b> 2015 IPB 제4회 정기연주회 19:30 5만원·3만원·2만원 IPB(010-9610-9465)</p> <p><b>소</b> 연극 '로맨틱vs코미디' 19:00(9:00, 11:00 단체관람) 균일 3만원/교육극단 놀이터(010-3274-5030)</p>	<p><b>24</b></p> <p><b>대</b> 부산시립합창단 제159회 정기연주회 및 제9대 수석지휘자 전상철 취임연주회 '헨델의 메시아(모차르트 편)' 19:30 1만원·7천원·5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8, 3142)</p> <p><b>중</b> 중소기업 인식개선 토크콘서트 16:00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 (031-490-1355)</p> <p><b>소</b> 연극 '로맨틱vs코미디' 19:00(9:00, 11:00 단체관람) 균일 3만원/교육극단 놀이터(010-3274-5030)</p>
<p><b>29</b></p> <p><b>중</b> 박승훈 귀국 트럼펫 독주회 17:00 균일 1만원/박승훈(010-2332-3627)</p> <p><b>소</b> 다락전통예술원 정기발표회 II 17:00 초대/이수진(010-2559-8849)</p>	<p><b>30</b></p> <p><b>중</b> 소프라노 조윤정 독창회 19:30 2만원·1만원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070-8265-0776)</p> <p><b>소</b> 민들레 현악4중주 가을 연주회 19:30 균일 3만원 민들레현악4중주(010-4998-5367)</p>	

<예술예의 초대>는 Caffé Deme 카페베네 부산시 전매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4	5	6	7
<p><b>대</b> 님의 예술혼 상생으로 통하다! 19:30 무료/부산문화재단(745-7233)</p> <p><b>소</b> 최윤영 작곡발표회 '아리랑! 부산에서 꽃 피우다' 19:30 무료/최윤영(010-9184-9619)</p>	<p><b>소</b> 진형준 피리 독주회 19:30 초대/진형준(010-8523-8518)</p>	<p><b>대</b>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오페라 인 콘서트 몬테베르디 '오르페오' 19:30 2만원·1만 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6, 3144~5)</p> <p><b>중</b> 롯데시니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19:30 15만원·10만원·8만원·5만원·3만원 솔오페라단(1544-9373)</p> <p><b>소</b> 2015년 경성대 평생교육원 제2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강학윤(010-9287-6350)</p>	<p><b>대</b> 부산가톨릭합창단 제37회 정기연주회 '하이든 큰북 미사곡' 19:30 균일 1만원 부산가톨릭합창단(010-5060-4744)</p> <p><b>중</b> 롯데시니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19:30 15만원·10만원·8만원·5만원·3만원 솔오페라단(1544-9373)</p> <p><b>소</b> 토요일실무대-부산시립교향악단 매직브라스 16:00 선착순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5)</p>
11	12	13	14
<p><b>대</b> 에그리나 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에그리나합창단(010-4567-6527)</p> <p><b>중</b> 브라스타 창단연주회 19:30 초대/브라스타(010-7622-1311)</p> <p><b>소</b> 고 월드 페스티벌 수상작 앵글공연 '새 사람' 20:00 균일 1만 5천원 부산연극제작소 동녘(010-9117-7453)</p>	<p><b>대</b> 부산심포닉밴드 제13회 정기연주회 '관·현 국악의 만남' 19:30 균일 1만원 부산심포닉밴드(010-9966-9063)</p> <p><b>중</b>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7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6, 3144~5)</p> <p><b>소</b> 고 월드 페스티벌 수상작 앵글공연 '새 사람' 20:00 균일 1만 5천원 부산연극제작소 동녘(010-9117-7453)</p>	<p><b>대</b> 이지벨 베르네 초청 독주회 20:00 3만원·2만원·1만원 부산문화(1600-1803)</p> <p><b>중</b>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8회 정기연주회 '깊은 가을 국악의 향기' 19:30 1만원·5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5, 3143)</p> <p><b>소</b> 고 월드 페스티벌 수상작 앵글공연 '새 사람' 20:00 균일 1만 5천원 부산연극제작소 동녘(010-9117-7453)</p>	<p><b>대</b> 2015 고신대학교 음악학과 정기연주회 '헨델의 메시아' 17:00 무료/고신대학교(990-2231, 2283)</p> <p><b>중</b> 피아니시모 제9회 정기연주회 '파리의 가을' 19:00 균일 1만원/피아니시모 음악연구회 (010-9238-2411, 010-8533-9662)</p> <p><b>소</b> 고 월드 페스티벌 수상작 앵글공연 '새 사람' 16:00 19:30 균일 1만 5천원 부산연극제작소 동녘(010-9117-7453)</p>
18	19	20	21
<p><b>중</b> 여성문화회관 미루샘합창단 제9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여성문화회관(320-8331)</p>	<p><b>대</b> 부산시립무용단 제73회 정기공연 '新월-안-찬-강' 19:30 1만원·5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7, 3154)</p> <p><b>중</b>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4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5, 3146)</p> <p><b>소</b> 제9회 새물결 춤 작가전 19:30 1만원·5천원 (사)부산무용협회(632-5116)</p>	<p><b>대</b> 부산시립무용단 제73회 정기공연 '新월-안-찬-강' 19:30 1만원·5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7, 3154)</p> <p><b>중</b> 부산시립교향악단 2015 어린이 음악회 '이야기가 있는 상상클래식-사운드 오브 뮤직' 11:00, 16:00 균일 2천원/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6, 3144~5)</p> <p><b>소</b> 제1회 삼 바이올린 연주회 19:30 무료/삼 바이올린학원(626-2335)</p>	<p><b>대</b> 벨라보체 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17:00 균일 1만원/이혜원(010-5500-3086)</p> <p><b>중</b> 부산시립교향악단 2015 어린이 음악회 '이야기가 있는 상상클래식-사운드 오브 뮤직' 11:00, 16:00 균일 2천원/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6, 3144~5)</p> <p><b>소</b> 토요일실무대-양상블 마즈 16:00 선착순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5)</p>
25	26	27	28
<p><b>대</b> 세계적인 바리톤 고성현과 함께하는 오페라 아카데미 갈라 콘서트 '아름다운 클래식 여행' 19:30 10만원·5만원·3만원·2만원 우리아트(920-9545)</p> <p><b>중</b> 여성문화회관 풍물놀이 예술봉사단 제5회 정기공연 19:30 무료/여성문화회관(320-8331)</p> <p><b>소</b> 연극 '로맨틱vs코미디' 19:00(9:00, 11:00 단체관람) 균일 3만원/교육극단 놀이터(010-3274-5030)</p>	<p><b>대</b> 제13회 부산광역시 여성연합합창단협의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우희라(010-4556-6703)</p> <p><b>중</b> 2015 고충진 클래식기타 독주회 '숲속의 꿈' 19:30 2만원·1만원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070-8265-0776)</p> <p><b>소</b> 연극 '로맨틱vs코미디' 19:00(9:00, 11:00 단체관람) 균일 3만원/교육극단 놀이터(010-3274-5030)</p>	<p><b>대</b>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클래식 거장들과 함께하는 늦가을의 정취' 19:30 2만원·1만 5천원·1만원·5천원/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6, 3144~5)</p> <p><b>중</b>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11:00 균일 2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48)</p> <p><b>중</b> 이수민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2만원/쥬세나(02-552-2505)</p> <p><b>소</b> 가족뮤지컬 '호두까기인형' 10:10, 11:10 균일 5천원/키즈샘(02-6409-6593)</p>	<p><b>중</b> 부산대학교 합창단 창단 47주년 기념 제65회 정기연주회 18:00 균일 1만원 부산대학교 합창단(010-3773-2683)</p> <p><b>소</b> 토요일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16:00 선착순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5)</p>
	<p><b>전시실</b></p> <p>제31회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작품 조소 서양화전공 - <b>대전시실</b> 11월 7일(토)-11월 12일(목) 부산대학교 미술학과(510-1738, 1748)</p> <p>광복 70주년 기념 기획전 위대한 역사 인물과 함께하는 <b>忠·孝·禮</b> - <b>중전시실</b> 11월 6일(금)-11월 29일(일) 일반 1만원, 학생 9천원(단체 7천원) 한얼문화연구소(070-8748-1217)</p>	<p><b>국제회의장</b></p> <p>제35회 부산미술제 - <b>대전시실</b> 11월 16일(월)-22일(일) 부산미술협회(632-2400)</p> <p>제4회 신라아트페스티벌 - <b>대전시실</b> 11월 25일(수)-11월 30일(월) 신라대학교 미술학과(999-5425)</p>	<p><b>국제회의장</b></p> <p>복지개척 국민운동 부산 발대식 11월 3일(화) 13:00 니영수(010-2263-4794)</p> <p>중국어 엑스파일 출판강연회 11월 14일(토) 13:00 (주)스타세븐(02-337-0487)</p>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 백주영

현존하는 최고의 작곡가이자 마에스트로인 펜데레츠키로부터 '안네 소피 무터의 뒤를 이을 바이올린의 여제'라고 격찬받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이 11월 27일 열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협연자로 오랜만에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특별한 가을 무대를 준비하는 백주영과 지면을 통해 특별한 만남을 갖는다.

2년만에 찾는 부산문화회관 지난해 1월 부산국제음악제에서 공연하고, 10월에는 신세계 센텀시티에서 7바이올리니스트 공연을 가졌었습니다. 부산문화회관에서는 1년 10개월만에 공연하는 것이니, 거의 2년 만에 공연하는 것이 되겠네요. 부산은 클래식 음악 관객 수준도 높고, 무대 위에서 연주하면서 청중들과의 교감도 친밀히 이루어지는 곳이라 이번 공연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특별한 곳**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부산은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조부모님도 부산에 계셨기에 어릴 때부터 명절 때나 방학 때 자주 찾던 곳이라 제2의 고향과도 같은 도시입니다. 지금은 할머니와 작은아버지 가족이 살고 계신데, 할머니는 이제 연세가 있지만 부산에서 연주할 때면 항상 오셔서 격려해 주십니다. 할머니와 가족들 외에도 관객들도 늘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부산에서는 참 편안하게 또 신나게 연주합니다.

**오랜만에 함께 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오래간만에 함께 연주합니다. 이전 협연 공연들 중 광승 선생님께서 지휘하신 부르흐 협주곡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해외 연주생활 이후에 오래간만에 협연했었는데, 뛰어난게 도약한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실력과 광승 선생님의 배려 깊은 지휘가 어우러져 부르흐의 바이올린 협주곡의 작품성을 다시 한 번 새로이 맛보았던 훌륭한 기회였습니다.

그 후 리신차오 음악감독님과 함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을 예술의 전당 교향악축제 등의 공연에서 관람하면서,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저력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바버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고 또 영광입니다.

**취미로 시작한 음악** 음악과의 첫 만남은 사실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4세 때 어린이집에 가서 거기 있던 피아노로 피아노 기초교본을 다 배워왔고 그때부터 취미로 피아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2년 뒤 사촌언니가 배우던 바이올린에 더 눈길이 가서 바이올린도 함께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시작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피아노보다 바이올린이 조금 더 흥미롭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음악에 대한 꿈은 사실 바이올린도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한 것이라 처음부터 대단한 꿈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우연히 TV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이자크 펄만의 내한연주를 보면서 소아마비를 딛고 대가가 된 그분의 모습에 큰 자극과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원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예고에 진학할 당시 명예교장 선생님이셨던 지휘자 임원식 선생님께서 저를 협연자로 세워 해외 연주 여행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음악가로서의 자세와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며,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낭만적인 브람스와 슈베르트 음악** 저는 고전적이면서도 낭만적인 브람스와 슈베르트의 음악을 가장 좋아하고, 또 저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숙제처럼 남아있는 곡이라면, 바르톡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과 프로코피에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은 아직 국내에서는 연주를 안 했는데, 그 두 곡을 언젠가 훌륭한 오케스트라와 꼭 해보고 싶습니다.

**관객과 교감하는 음악 추구** 저는 제 음악으로 관객과 교감하고, 그 감성이 어떤 것이든 소통과 교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클래식 음악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어떻게 들어야 할지, 또는 무엇을 들어야 할지, 이렇게 느끼는 것이 맞는 것인지 등 의문이 들어서라고 하시는데 듣는 방법이나 내용 또는 느끼는 감정이 듣는 한 분 한 분마다 당연히 다르고, 또 정해진 정답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연주를 통해 관객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것이라도 듣고 느끼시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여졌다면, 그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꿈꾸는 연주가** 11월 초에 프랑스 브레파뉴 오케스트라와 협연 및 실내악 공연을 다녀올 예정이고, 2016년 1월에는 일본과 미국 공연, 3월 폴란드, 4월 스페인 등 해외 연주가 꾸준히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에서 더 많이 활동하며 음반작업을 많이 하고 싶고요, 국내에서도 좀 더 두터운 팬 층을 가진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바버 바이올린 협주곡 감상 포인트** 바버는 미국 작곡가로, 제가 공부했던 커티스 음악원을 졸업한 제 선배이기도 하네요. 어렸을 때부터 작곡계에서도 인정받고, 또 이번에 연주할 바이올린 협주곡도 성공적으로 초연 되었을 정도로 인기 있는 미국 작곡가입니다.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1악장, 오보에 솔로와 바이올린 독주가 멋지게 어우러지는 2악장, 그 후 짧지만 강렬하고 초긴장 상태로 처음부터 끝까지 질주하는 3악장이 아주 효과적인 곡입니다.

좋아하는 곡으로 오랜만에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협연무대에서 서게 되어 어느 때 보다 부산 무대가 기다려진다는 백주영. 늘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 주는 부산 팬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특별한 무대를 선물하고 싶다.

## 오카다 토시키의 단편소설을 1인극으로

# 여배우의 혼

글 이홍이 일본 통신원

“

지난 8월 말 일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살인사건이 있었다. 작은 연극 극단에 소속되어 배우를 하던 젊은 여성이 본인의 집에서 살해를 당한 것이었다. 집안은 밀실 상태로, 목이 졸려 사망한 것을 경찰이 뒤늦게 발견해, 뉴스에서는 연일 하나라도 단서가 나올 때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 그 사건을 다뤘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마침 그 시기, 도쿄 신주쿠의 으스스한 뒷골목 소극장에서는 어느 여배우가 교살을 당해 억울하게 죽은 뒤 혼령의 몸으로 관객 앞에 나와 사건의 경위를 이야기하는 연극을 하고 있었다. 바로 오카다 토시키(岡田利規) 작·연출의 ‘여배우의 혼(女優の魂)’이라는 작품이었다.

오카다 토시키는 현대 일본연극을 대표하는 극작가 겸 연출가 중 한 명으로, 극단 첼피츄(チェルフィッチュ)의 대표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도 첼피츄 내한공연으로 ‘3월의 5일간’, ‘햇 페퍼, 에어컨 그리고 고별사’, ‘현위치’, ‘지면과 바다’이 소개되어 매번 큰 주목을 받았고, 또 가장 최근에는 광주 아시아 예술극장 개막 페스티벌 참가작이자 그의 첫 한일 공동제작 프로젝트 작품 ‘야구에 축복을(God Bless Baseball)’이 공연되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일찍이 아시아 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도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며 연극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여 왔던 그는 매 신작이 나올 때마다 연극팬들과 평론가들을 설레게 만드는 작가이다. 그렇지만 그런 화제의 신작들 속에서도 ‘여배우의 혼’은 특별한 작품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실 이 작품은 그의 단편소설이기 때문이다.



(C)Hideto Maezawa



(C)Hideto Maezawa



우리에게는 오카다 토시키에게 연출가라는 수식어가 가장 익숙하지만 그는 소설가로도 활약하고 있다. 그는 첫 소설집 ‘우리들에게 허락된 특별한 시간의 끝(わたしたちに許された特別な時間の終わり)’(신초샤, 2007)으로 제2회 오에 겐자부로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고, 그 외에도 ‘낙관적인 쪽의 케이스(樂觀的な方のケース)’(《신초》, 2008년 6월호) 등의 단편소설을 문예지에 발표했다. ‘여배우의 혼’도 잡지 <미술수첩(美術手帖)> 2012년 2월호에 게재된 소설이다.

이 이야기는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1부는 여배우 사다코의 사연에 해당한다. 10여 년의 연극배우 삶을 살며 이제 드디어 여배우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한 무렵, 사다코는 다른 여배우 M에게 살해를 당하고 만다. M이 자신의 역할을 사다코에게 빼앗긴 뒤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살인의 이유는 아마도 질투심 때문이다. 사다코도 그렇게 추측할 뿐이다. 그리고 사다코는 M의 연기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소극장 연극계에서 배우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에게 육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한다. 제2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청년 와카야마가 등장하면서부터다. 미대를 졸업하고 예술가가 되기를 희망했던 그는 미대 재학시절 아르바이트로 누드모델을 하러 왔던 사다코를 알아본다. 두 사람은 서로의 죽은 이유를 묻기 시작한다. 와카야마는 예술가란 무엇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를 품념하며, 그런데 자신은 그런 예술가가 되려고 노력하는데도 좀처럼 될 수 없다는 사실에 고민하고 절망하다 죽음을 선택했다고 말한다. 두 사람이 수다를 나누다 도착한 곳은 마치 구청과도 같은 곳이다. 저승으로 가기 전에 수속이 필요한 모양으로, 두 사람은 서류를 작성한다. 공무원인 듯한 사람이 내민 서류에는 간단한 개인정보를 기입하는 란과 함께 이승에서의 직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는 란이





극작가 겸 연출가 오카다 토시키  
(C)Nobutaka Sato



있다. 사다코는 앞으로도 계속 여배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한편, 와카야마는 고민한다. 그리고 혹시 저승에 가면 국적을 바꿀 수 있는지 묻고,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더 이상 예술가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쪽에 동그라미를 그린다.

젊은 예술가 두 명을 등장시켜, 그 중 여배우의 눈으로 그들의 삶을 재치있고 유머러스하게 회상한 이 단편소설은 발표된 해에 곧바로 연극 무대로 옮겨졌다. 놀랍게도 단 한 글자도 고치지 않은 채 그대로 연극이 되었지만, 실은 전혀 연극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집필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획이 가능했던 것은 극단 첼피츄의 여배우 사사키 유키코(佐々木幸子)가 제안을 하면서 실현되었다. 초연 이래 일본의 8개 도시에서 공연되었던 이 작품은 이번 여름 8월에 구마모토(8월 8~9일)를 시작으로 사가(19일), 오키나와(22~23일), 그리고 도쿄(28~30일)에서 재공연되었다.

죽음과 예술, 그 심오한 두 세계로 뛰어든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약 40분 동안 시간을 잊게 할 정도로 경쾌하게 흘러갔다. 소설을 읽어 내려가면서 느꼈던 풍자와 코미디는 고스란히 무대 위에서도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시키며 객석을 향해 내던져지고 있었다. 저승에 가셔도 여배우를 계속 할 것이라고 온몸으로 크게 동그라미를 그렸던 사다코, 그리고 계속 일본인으로 살아야 한다면 예술가를 하지 않겠다고 통명스러운 말을 내뱉는 와카야마의 여운이 길게 남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 작품은 속편과 함께, 내년 1월 서울에서 한국버전으로 새롭게 초연될 예정이다. 한일 양국 아티스트의 고민들이 맞닿을 지점은 어디쯤일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죽음과 예술의  
영혼의  
대결

# 동래의 화가 변박, 일본에서는 그림보다 한시를 먼저 짓다

글 강남주 전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일이다. 변박은 내심 사행선을 관리나 하며 오사카에 머무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다. 고된 항해가 없어 피로강도도 덜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높은 사람들이 떠난 뒤는 신경 쓸 일도 없어진다. 그러면 마음 놓고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지고 말았다.**

조엄 정사의 지시대로 그는 일행과 함께 에도로 향하게 되었다. 비록 추운 날씨이긴 하지만 중간 숙소에서라도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은 그래서였다. 마음을 그렇게 먹자 오히려 편했다. 오사카에는 항해 중 병이 난 소동 김한중이 절에 머물면서 요양을 하게 돼 있다. 2백 명에 이르는 격군들을 관리하는 일은 어쩌면 에도로 가는 것보다 더 힘들지 모른다.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그는 정사의 측근에 붙어 먼 여정에 올랐다.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떠난 첫날 중간 잠시 휴식을 하는 동안 그는 정사에게 불려갔다. 교토와 오사카의 중간 지점 요도라는 곳이었다.

“저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왜인에게 물었더니 수차(水車)라고 한다. 저것을 그대로 그려 두거라. 목수인 허규에게는 수차의 크기를 그대로 자로 잘 재어 두게 하고, 알았느냐?”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대마도에서는 고구마를 그려두라고 하더니 여기서는 물레방아를 그려두라고 지시했다.

“저것을 우리나라에 돌아가서 그대로 만들어 쓰면 백성들이 가뭄을 이기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그림만 보고도 그대로 만들 수 있게 잘 그려 두거라.”

정사는 눈에 띄는 것은 모두 백성의 생활과 연관시켜 생각했다. 장점은 보이는 것이면 모두 백성을 위해 이용하려는 그의 목민정신에 변박은 이번에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뱃길만 험한 것은 아니었다. 에도로 가는 육로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추운 날씨에 때로는 돌발 길도 걸어야 했다. 바람이 몰아치는 산기슭을 돌 때는 귀와 코가 떨어져나가는 것도 같았다. 대부분이 숙소인 절에 들었을 때도 춤기는 마찬가지였다.

에도로 가는 길에도 그에게는 마음 놓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았다. 문화교류를 할 때도 화가의 신분으로 사행길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화원 김유성을 제치고 자신이 화가라고 현지민들 앞에 나서기란 마음에 내키는 일이 아니었다. 결국 변박은 부산을 떠난 다음 해 2월 16일 에도에 도착하는 날까지 한 점의 그림도 그리지 못한 무늬뿐인 화가가 되고 만 것이다.

사행단은 에도에서 24일 간이나 머물렀다. 그리고 24일 뒤인 3월 11일에는 귀로에 올랐다. 에도로 가는 길에 잠시 들렀던 일이 있는 순푸의 유명한 절 세이켄지(淸見寺)에는 귀로에도 다시 들리게 되었다. 절 입구, 본당, 절의 복도, 종루 할 것 없이 앞서 간 사행원들의 글씨가 수두룩하게 현판으로 걸린 절이다. 명필의 전시장 같은 이 절에서 하룻밤을 쉬게 되어 변박은 기분이 좋았다. 앞서 간 사행원들의 좋은 글을 차분히 읽을 수 있는 기회는 자신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자신의 서체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세이켄지에 도착했을 때도 그는 그림 그릴 생각을 접었다. 그림은 공식 회원인 김유성이 그리고 자신은 좋은 글씨나 쓰보고 싶어졌다. 그는 여기저기 붙어 있는 현판의 글씨들을 다시금 둘러 봤다. 변박이 도착하기 53년 전 상통사 현덕윤이 쓴 동해명구(東海名區), 110년 전에 정사 조형이 쓴 경요세계(瓊瑤世界), 120년 전 독촉관 박안기가 쓴 흥국(興國) 등 빼어난 글씨들이 그의 눈을 사로잡고 가슴을 울렁거리게 했다. 그는 마침내 열일을 제쳐놓고 붓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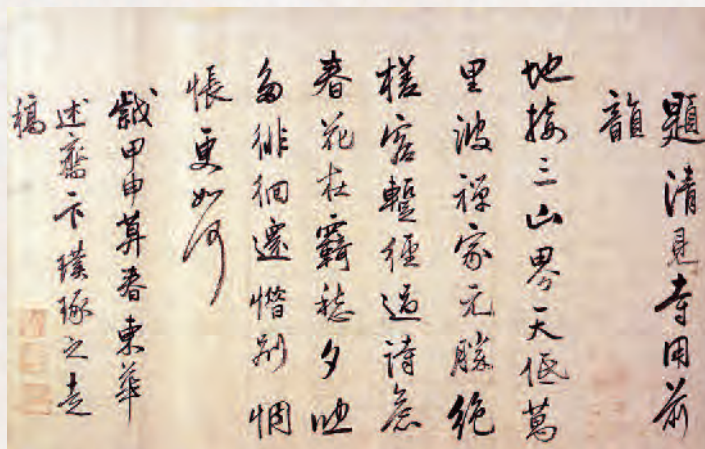
題清見寺用前韻(제청견사용전운)

地接三山界(지접삼산계) - 땅은 삼신산의 경계에 접하였고  
 天低萬里波(천저만리파) - 하늘이 만리 파도에 낮은데  
 禪家元勝絕(승가원승절) - 선가는 원래 경치 빼어나  
 槎客暫經過(사객잠경과) - 사자로 나그네 잠시 거쳐 지나니  
 詩意春花任(시의춘화재) - 시상으로 봄꽃이 있고  
 羈愁夕照多(기수석조다) - 나그네 시름 석양이 좋구나  
 徘徊還惜別(배회환석별) - 배회하다 도리어 작별이 아쉬워  
 惆悵更如何(추창갱어하) - 서글픔을 다시 어찌하리 \*정경주 역

歲甲申暮春東華述齋下璞琢之走稿(세갑신모춘동화술재변박탁지주고)  
 - 갑신년 봄 조선인 술재 변박 탁지가 급하게 쓴 글

숨을 죽이고 그가 써내려가는 글씨를 보고 있던 사행원들은 눈을 의심했다. 서체나 문장의 수준이 범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기선장인 변박의 숨은 문장실력과 운필에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가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쓴다는 것이야 우수수들 알았다. 그렇지만 어휘를 빚어내는 솜씨나 고전을 이해하고 문장을 엮어내는 수준이 이 정도로 높을 줄이야 몰랐기 때문이었다.

한양의 선비, 고위직 사행원들은 변박의 그림 솜씨까지도 궁금해졌다. 그는 격줄들이나 지휘하는 단순한 선원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그의 문장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추운 겨울, 깊어가는 사찰의 한밤중에 누구도 그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청하지는 않았다. 다만 귀국하기 전 그의 그림 솜씨도 확인할 수 있으려니, 마음속으로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 계기는 되었다.



세이켄지에 있는 변박의 한시



세이켄지에는 절입구, 본당, 절의 복도, 종루 할 것 없이 앞서간 사행원들의 글씨가 현판으로 걸려 있다.



변박이 머물렀던 세이켄지 전경

# 게스트하우스, 다섯 그루 나무 -골목 속의 작은 휴식처

글 강기표 건축가, 건축사사무소 아체 ANP 대표, 동명대학교 · 인제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골목과 미당\_©노경

초량동의 골목 사이로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진, 한 채의 주택과 네 채의 게스트 하우스 '다섯 그루 나무'가 자리하고 있다. 인근에는 1922년에 지어진 부산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구 백제병원'이 적벽돌 외관과 함께 있고, 명태 창고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철거되고 벽체의 일부만 남은 '남선창고'가 있었다. 초량(草梁)이란 지명은 이곳에 있었던 초량항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초량은 우리말로 '삿뚱'을 한자화하여 표기한 것으로 전해 온다. 삿뚱은 억새, 갈대라는 뜻의 '초(草)자'와 뚱 '량(梁)자'를 따서 지은 것이다. 풍수상으로 부산포 지형이 와우형이라 풀밭이 있어야 하기에 초량이란 명칭이 생겨났다는 설도 있다. 미군의 유흥가에서 유래한 '텍사스거리'가 있고, 지금은 '차이나타운'이라고 불리는 '청관(淸館)거리'는 1884년 지금의 화교학교 자리에 청나라 영사관이 자리하여 영사관 주위로 중국 사람들의 점포를 겸한 주택이 형성되면서 비롯된 거리 이름이다. 그리고 용두산 주위에 있던 일본인들의 '왜관거리'에 대응하여 부른 명칭이기도 하다.

### 다섯 그루 나무

오래된 두 그루의 나무와 한 채의 적산 가옥 그리고 쓰러져가는 두 채의 슬레이트집이 있었던 대지에 들어선 '다섯 그루 나무'는 이 다섯 가지 서로 다른 시간의 기억을 환기하고 또 다른 시간을 이 장소에 이식(移植)하고 싶었다고 건축가 정영한<sup>1)</sup>은 설명하고 있다. 초량동은 도시 속 우리의 삶과 시간의 공간의 켜로 층층이 쌓여 있다. 일제 강점기의 적산가옥이 몇몇 곳에 남아 있고, 한국전쟁을 거치며 생겨난 판잣집은 블록과 슬레이트 집으로 변화하였다. 산업화를 거치며 짙은 유약 타일의 다가구주택이 무질서하게 들어섰고, 2000년대 이후의 다세대 주택 그리고 아파트 등등 시간의 켜가 골목과 함께 다양한 유형의 공간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 부산 원도심의 공간적 특징 중의 하나인 골목은 도시의 미세한 말단부에 생명을 불어넣는 싹과 같다. 이웃과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기도 하고, 공간을 이어나가는 동선이기도 하다. 골목의 평상은 마을의 사랑방이 되며, 담소와 휴식과 간식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김장 등 작업공간이 되기도 한다. 아이들의 뛰어 노는 웃음소리가 마을의 활기를 불어넣기도 하지만 개발이라는 산업의 바이러스가 골목을 잊게 하고 있다.



### 골목과 마당

도시의 실핏줄을 되살리듯 '다섯 그루 나무'는 대지 내에 골목을 가지고, 조그마한 마당에 다섯 그루 나무가 심어져 있듯 다섯 채의 집이 아담하게 놓여 있다. 그중 한 그루는 여행을 삶의 일부로 생각하는 건축주가 살고 있는 1인 가구의 작은 집으로, 나머지 네 그루는 여행자들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로 강한 독립성을 가진 별채로 들어서 있다. 대지 내 골목과 마당은 여행 중 우연히 마주한 여행자에게 작은 휴식처를 주기도 하고, 저녁노을 한껏 품은 마당은 여행 중의 낭만을 여행 노트에 굵적거리게 한다. "40평 대지 위에 채 나눔을 통해 다섯 채의 작은 집들이 만들어 내는 간격은 마치 자연에서 늘 마주하는 수목과 수목 사이의 임의적 거리감과 닮아 있다. 그 사이로 초량의 서로 다른 시간의 풍경이 스미고 잠시 머물고 갈 여행자들에게겐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별을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건축가는 설명한다.

채와 채 사이의 틈을 골목과 마당으로 병치시킴으로써 초량이 갖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커를 잊지 않고 있다.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골목과 마당은 건축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내부공간에서 자연스럽게 확장, 연결되며 이웃 주민 혹은 거니는 사람들을 호기심으로 건축에 말을 걸 듯 기웃거리게 한다. 현대 도시가 잃어가고 있는 이웃 간의 대화와 왕래를 골목과 마당을 통하여 되살리고 있고, 일반적 게스트하우스가 폐쇄적 공간인 곳에서 벗어나 여행자가 잠시 머무는 동안 마을 주민의 한사람이 되도록 한다. 관광이 아닌 여행지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진솔한 여행의 의미를 느끼게 한다. 여행은 사람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 그네들의 문화와 삶을 이해하는데서 출발하는 게 아닐까?



- ① 여행자의 휴식처인 마당\_@강기표
- ② 실내전경\_@노경
- ③ 이웃 재료의 고유성을 인정한 표정\_@노경
- ④ 따뜻한 햇살이 유입되고 있는 계단실\_@노경



## 벽돌, 시멘트, 슬레이트

재료는 건축의 표정을 만든다. '다섯 그루 나무'는 크게 세 가지의 표정을 갖고 있다. 그 표정은 주변 주택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는 벽돌, 시멘트, 슬레이트로 크게 나누어진다. 벽돌은 검은색 벽돌의 거친 쌓기로, 시멘트는 화장하지 않은 거친 시멘트 뿔칠로, 슬레이트는 징크 패널로 새롭게 해석되며 골목에 생기를 불어 넣고 있다. 또한 오랫동안 장소가 갖고 있던 이웃 재료의 고유성을 인지하고 나아가 친화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다. "조형성만 가득한 건물의 형태를 최대한 배제하고 다섯 채의 집들은 서로 다른 높이와 크기 그리고 개체 간의 밀도만이 주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고 싶었다"라고 건축가는 이야기한다. 또한 주변과의 물리적 경계인 담장을 설정하지 않고 마치 숲 속 나무 사이의 능동적 질서처럼, 건물 사이 벌어진 다양한 틈을 통해 주변 골목길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주변과의 경계를 흐리며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끌어들인다.

여행은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여행을 통해 자신만의 사색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우연히 마주친 여행자와 또 다른 사색을 엿보기도 한다. 도시는 시간의 여행을 하고 있다. '다섯 그루 나무'속에서의 여행은 잊었던 도시의 시간과 공간의 켜를 되새기게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여유로운 휴식처를 선물하고 있다. '다섯 그루 나무'의 뒷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금년에 개최된 '2015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에서 '2015 한국건축가협회 협회상'을 수상하였다. '한국건축가협회 협회상'은 우리나라 가장 권위 있는 건축상이다.

### 1) 정영한 건축가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과를 졸업하였다. 2002년 스튜디오 아키텍처(現 정영한 아키텍츠)를 개소하여 현재까지 다수의 실험적인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근작인 인사동의 '체화의 풍경(POROSCAPE)'으로 '2013년 서울시 건축상'을 수상했다. 9×9 실험주택, 6×6 주택 등 다양한 작품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2013년부터 시작한 '최소의 집'의 총괄전시기획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광운대학교 건축과에 출강 중이다.

문화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소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 클래식 아트홀 이인아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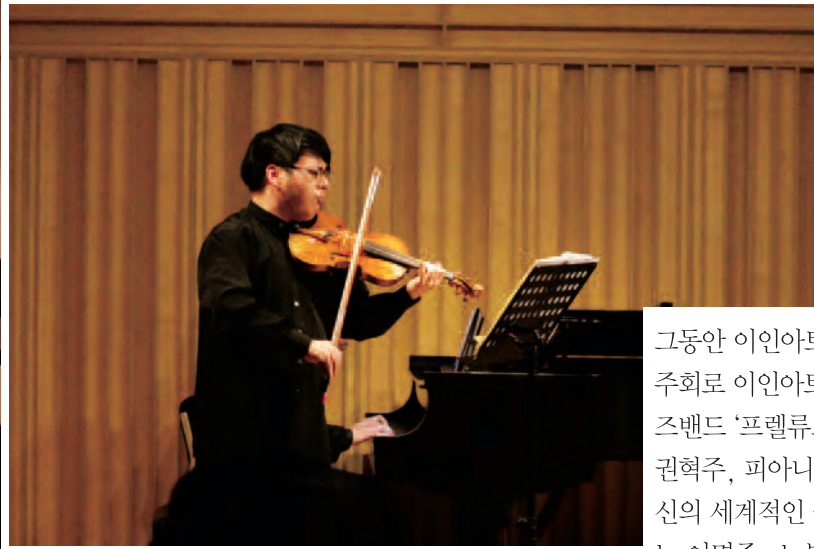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센텀시티 마천루의 화려한 불빛이 바라다보이는 수영강변은 인근에 쇼핑센터와 문화시설, 주거단지가 함께 모여있어 부산시민들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다. 잘 가꾸어진 강변 주위에는 저마다 특색을 지닌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자리하면서 부산의 핫 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 곳에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교감하고 즐길 수 있는 클래식 콘서트홀 이인아트홀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2012년 4월에 개관한 이인아트홀은 사실 공연장인 이 곳보다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이탈리아 레스토랑 ‘엘 올리브’로 유명하다. ‘엘 올리브’는 이인아트홀을 탄생시킨 건축디자인회사 ‘PDM partners’ 대표로 있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고성호 씨가 건축에서부터 인테리어, 그리고 직접 레스토랑 경영까지 맡고 있는 곳으로, 이인아트홀은 ‘엘 올리브’와 나란히 위치한 PDM partners 사옥 2층에 자리하고 있다.

예술의 영역을 넘나들며 지역문화의 지평을 넓혀온 고성호 씨가 음악이라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소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문을 연 이인아트홀은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생소하지만 음악애호가들에게는 이미 유명한 공간이다. 40명이 채 되지 않는 넓지 않은 공간에 깔끔한 무대시설과 쾌적한 객석, 수영강변이 한눈에 바라다보이는 리셉션홀, 대기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연주회장으로 손색이 없다. 연주자들의 숨소리 하나하나 객석 가까이서 들을 수 있어 살롱음악회장으로 특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동안 이인아트홀을 다녀간 연주자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개관 연주회로 이인아트홀 첫 무대를 장식했던 국내 재즈계의 선두주자 재즈밴드 '프렐류드(Prelude)'를 시작으로 바이올리니스트 피호영, 권혁주, 피아니스트 조재혁, 첼리스트 루이지 피오바노, 벨기에 출신의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마크 그로웰스, 베이스 함석현, 소프라노 이명주, 노부스콰르텟,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과 그가 음악감독으로 있는 에라토앙상블, 탱고·재즈프로젝트 음악그룹 라벤타나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자들이 이인아트홀 무대를 거쳤다. 지난 9월 13일에는 세계적인 성악가 바리톤 고성현 씨가 이곳에서 초청 공연을 가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문을 열었던 지난 2012년 10월에는 2012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 작가였던 고신대학교 홍푸르메 교수의 특별전이 이곳에서 열리기도 했다. 이인아트홀뿐 아니라 아트홀이 자리한 PDM partners 사옥 전체와 레스토랑 '엘 올리브'에서 함께 열렸던 특별 전에서는 홍푸르메 교수의 작품 전시와 더불어 플라워샵 '마네와모네'의 플라워쇼가 함께 펼쳐져 색다른 관람 기회를 제공했다.

또, 2013년 5월에는 '우포늪 사진작가'로 유명한 정봉채 사진전이 이곳에서 열려 화제가 되었다. 기존 갤러리와 다른 전시 공간을 두고 고심을 하다가 이인아트홀을 선택한 정봉채 작가는 사각 공간이 아닌 아트홀이 자리한 PDM partners 사옥 곳곳에 동선을 따라 작품을 배치하면서, 이미 건축물 자체가 예술이라는 평기를 받은 사옥 공간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해 관람객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부산국제연극제, 부산국제합창제, 부산국제영화제 심사 장소로 제공해 많은 찬사를 받았고 삼성생명과 신영증권, 가나아트부산, H&M 등 기업의 행사기획을 맡아 주관하기도 했다.

개관 후 지난해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이인아트홀은 올해 새로운 출발을 위해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기획공연을 통해 부산시민들 속으로 좀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면 앞으로는 좋은 기획을 가진 지역 예술가들의 대관공연을 적극 유치하고 서포트해 부산문화의 지평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문화예술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利人'의 행보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 문의/이인아트홀 750-2165

# 지리산을 품은 하동 오감여행

추석연휴가 끝난 10월 2일 이른 아침, 하동오감여행을 위해 부산문화회관으로 모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족들의 표정은 어느때보다 밝았다. 2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슬로우시티 악양에는 어느새 가을빛이 완연하다. 우리들의 첫 여행지는 섬진강이 내려다보이는 하동군 지리산 생태과학관.



2012년 5월 5일 문을 연 하동군 지리산 생태과학관은 지리산의 희귀 야생 동·식물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야외 야생화단지과 지상 2층 연면적 1,120㎡ 규모로 지어졌다. 과학관 1층은 안내데스크와 기획전시실·표본전시실·체험학습실, 2층은 생태과학실과 생태체험실, 수생태공간, 체험수조, 수리창의과학실, 전망대로 구성되어있고 야외공간에는 야생화단지 벤치와 새집, 전시 겸용 휴식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야생화단지에는 특히 지리산 깃대종인 히어리와 쥐방울덩굴, 갯깁이풀, 나도승마 등 250여 종의 야생화와 수목이 구성되어 있어 계절마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아 회원들 모두가 초행길이라 생태관에 기대가 더욱 컸다.





하동군 지리산 생태관에서 바라본 섬진강



골목길 갤러리에서는 담벼락도 작품이 된다.

부산에서 온 정기회원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던 하동군 문화해설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지리산을 품고 있는 하동의 역사와 문화, 지리산과 섬진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본격적인 에코투어가 시작되었다.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지리산과 하동에 대한 정보를 쉽고 정감어린 해설과 함께 들을 수 있어 생태관을 둘러보는 내내 회원들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설명이 끝난 뒤에도 정기회원 가족들은 지리산 생태관에서 내려다보는 섬진강과 지리산의 너른 품에 안겨 오랜만에 도심의 묵은 때를 씻어 내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지리산의 기운을 품고 자란 악양의 야생차체험을 위해 지난 5월 방문한 매암차문화박물관을 다시 찾았다. 2000년 5월 21일 개관한 매암차문화박물관은 1963년 다원을 조성하면서 시작되었고, 지난 40년간 잊혀져있던 고유의 전통차 제조기법을 재발견하고 보존하는데 힘써 왔다. 매암차문화박물관은 단순히 유물만 보는 일반적인 형태의 박물관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차의 제조과정과 차에 관한 이야기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박물관으로 4계절 꾸준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가을이 살포시 내려 앉은 악양들에는 누른 벼 사이로 푸른 차밭 풍경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봄에 만난 파릇파릇했던 새순들은 자취를 감추고 향긋한 녹차꽃과 빨간 열매가 맺혀

차나무를 처음보는 정기회원 가족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했다. 탁 트인 넓은 차밭을 자유롭게 거닐며 도심에서 느낄 수 없었던 여유를 만끽하는 회원, 매암다원에서 삼삼오오 모여 차를 마시는 회원, 처음 보는 녹차꽃 따기에 분주한 회원... 슬로우시티 악양에서 보내는 오후는 그렇게 꿀맛처럼 달콤하게 흐른다.

마지막 일정은 악양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골목길 갤러리. 하동군과 예술가들의 열정, 예술혼으로 평사리 하덕마을에 조성된 골목길 갤러리는 마을 골목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갤러리이다.

갤러리의 큰 줄거리에는 차의 시배지 하동을 알리기 위해 차(茶)로 정하고 골목 골목 만남, 차꽃, 찻잔, 달 아래서, 천년 차나무처럼 차와 연관된 소재로 꾸며졌다. 차 꽃은 순백의 차꽃잎과 노란 꽃술의 조형적 이미지를 활용해 골목길의 분위기를 환하게 연출하고, 오래된 찻잔 속 다양한 모양의 찻잔들 모습을 통해 하덕마을 어머니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가득 담아내고 있다. 길가 담벼락까지 길게 뻗은 악양 대봉감들이 골목길 갤러리의 운치를 더해준다.

시간에 쫓기며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달려간 하동여행길. 슬로우시티 악양의 기운을 한껏 받고 돌아오는 길은 어느 때보다 오랜 여운을 갖게 한다.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예교투어2**



주남저수지

12월 11일(금)

## 살아있는자연박물관 주남저수지 철새탐방

1980년 가창오리 5만 마리가 월동한 것을 시작으로 천연기념물 16여 종과 환경부 멸종 위기종 10여 종 등 93여 종의 다양한 철새가 감동을 전해주는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 창원 주남저수지로 떠나는 겨울 여행.

-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09:30 주남저수지 도착, 람사르문화관, 생태학습관 탐방
- 12:30 중식
- 14:00 감미로운 마을 농촌체험-단감파이만들기, 전통놀이 등
- 16:30 부산으로 출발

### <11월 테마여행 당첨자>

#### 신규 회원

- 고광식(남구 석포로)
- 김성화(북구 금곡대로)
- 김순태(서구 충무대로)
- 김은수(수영구 광안해변로)
- 배진희(남구 유엔로)
- 신선희(동구 수정공원로)
- 임은주(남구 옹호로)
- 이승혜(금정구 옥봉로)
- 장정득(남구 석포로)
- 조성열(남구 유엔로)

#### 기존 회원

- 김경숙(금정구 식물원로)
- 김순덕(기장군 차성로)
- 김태진(연제구 월드컵대로)
- 박근령(남구 유엔로)
- 박원석(남구 유엔로)
- 손옥주(동래구 동래로)
- 송영희(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 이경주(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 이지현(해운대구 해운대로)
- 최정숙(서구 임시수도기념로)

테마여행은 정기회원들과 예술단이 함께 떠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정기회원 응모자중 10명과 신규 가입자 10명을 추첨, 매달 둘째 금요일 특별한 여행을 떠납니다.

#### <신청방법>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테마여행 게시판)
- 전화, 엽서로 신청

#### <가입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051-607-3100



# 이제까지 있는 사사사 크라베시크 사운드 오브 뮤직



11월 20일 | 금 - 21일 | 토 오전 11:00,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휘 김광현  
원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 프로그램

그리그 『페르귄트』 중  
모차르트 『돈 지오반니』 서곡  
리벨 『어미거위』  
림스키 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중  
로저스 『사운드 오브 뮤직』 모음곡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연기 뮤지컬 컴퍼니 **기리**

# C U L T U R E L I F E

32\_ 프리뷰  
 38\_ 리뷰  
 40\_ 프로그램 가이드  
 62\_ 새로 나온 책  
 63\_ 새로 나온 음반



##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1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수아트홀 | 744-1415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음 | 557-3369

액티스소극장 | 611-6616

에저포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용천지탈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축제 소극장 |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미골소극장) | 1588-9155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오페라 인 콘서트 몬테베르디 오페라 '오르페오'

11.6(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음악사상 최초의 본격적인 오페라로 알려져 있는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오르페오'가 11월 6일 부산시립교향악단 '오페라 인 콘서트' 2015년 무대로 부산에서 초연된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지난 2009년부터 마련해온 '오페라 인 콘서트'는 기존 오페라의 무대세트 등 고가의 연극적 장치를 배제시키고 최소한의 소품과 의상으로 청중들에게 최고의 오페라 음악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무대로, 그동안 다양한 작품을 통해 음악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오페라 '오르페오'는 페리와 카치니가 작곡한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오페라 '에우리디체' 이후 최초의 걸작 오페라로, 1597년 지금은 악보가 유실되고 없는 최초의 오페라 '다프네(Dafne)'가 만들어진 이후 근대적인 개념의 오페라로는 처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페라 '에우리디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의 오르페우스 신화를 소재로 한 '오르페오'는 당시 귀족들의 아낌없는 지원 아래 탄생한 대표적인 궁정 오페라로 음악 사상 최초로 음악과 극이 함께 어우러지며 아리아와 서곡 등 오페라 형식을 갖추기 시작했다.

(재)국립오페라단 음악감독을 역임한 지휘자 김주현이 지휘와 연출을 맡고 지난 7월 서울시오페라단 국내 초연무대에서 주역으로 무대에 올랐던 바리톤 한규원, 소프라노 정혜옥, 베이스 박준혁과 소프라노 정혜민, 바리톤 박대용, 첼발로 연주자 손소향, 그리고 부산시립합창단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바로크시대의 멜리σμα 선율과 통주저음으로 구성된 고악보를 현대적으로 편곡, 콘서트 형식의 새로운 무대로 바로크시대의 정통 오페라를 소개한다.

이탈리아 페스카라 주립 음악원에서 지휘 디플롬을 취득한 지휘자 김주현은 국립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 수습지휘자로 수확한 후 키에티 시립 오페라극장 소속 지휘자로 활동하다 귀국한 후 다수 오페라 및 국내외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 등을 통해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 뮤직 코치를 맡기도 한 첼발로 연주자 손소향은 스칼라극장 아카데미합창단 피아니스트, 현대음악양상블 피아노 및 첼발로 주자, (재)국립오페라단 상근 수석 피아니스트를 역임하고 현재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로 있다.

서울시오페라단 국내 초연무대에서 오르페오 역을 맡아 많은 박수를 받았던 바리톤 한규원은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 상근단원 격인 'Alder Fellowship'에 한국인 최초로 발탁되면서 오페라와 인연을 맺은 후 전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에우리디체 역으로 같은 무대에서 호흡을 맞췄던 소프라노 정혜옥은 2012년 고양국제음악제 주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서 수잔나 역으로 데뷔한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오고 있다. 카론테 역을 맡은 베이스 박준혁은 깊고 부드러운 음색과 폭발적인 에너지로 오페라가수, 예술가곡 연주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 소프라노 정혜민이 라무지카 역으로,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리톤 박대용이 아폴로 역, 부산시립합창단 소프라노 수석 이정란이 프로세르피나 역, 알토 수석 정은영이 메신저 역, 베이스 수석 문동환이 플루토네 역, 단원 강은태가 파스토리 역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입장료** R석 2만원·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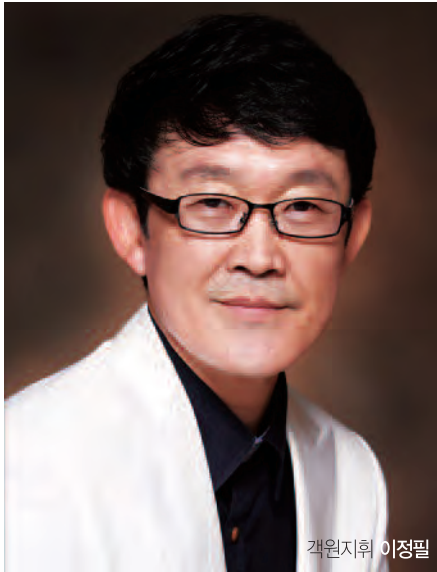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6, 3144~5



Preview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1회 정기연주회 깊은 가을 국악의 향기

11.13(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객원지휘 이정필



객원지휘 계성원

원지휘자 이정필은 부산대학교 효원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예술감독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시민공원 문화총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정필 지휘자는 ‘판놀음Ⅱ’에 이어 드넓은 평야처럼 웅장하고 기개가 넘치며 온화하고 푸근한 마음의 평야를 국악으로 그려낸 강상구 곡 ‘광야의 숨결’, 서구적 가치인 물질만능주의에 젖어 정서적 안정을 찾지 못하는 현대인의 고뇌와 갈등을 나타낸 곡으로, 전통적인 산조와 시나위풍, 재즈풍의 현대음악이 갈등과 방향, 그리고 극복의 과정을 재미있게 표현한 이정섭 곡 ‘방향’을 들려준다.

깊어가는 늦가을의 정취를 아름다운 국악선율로 들려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1회 정기연주회 ‘깊은 가을 국악의 향기’가 11월 13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국악계 중견지휘자로 왕성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휘자 계성원, 이정필의 객원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특히 서양음악에 치우쳐 있는 음악계의 현실 속에서 시민들에게 한결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독창성 있는 국악 창작곡으로 우리음악의 멋과 신명을 관객들에게 전해준다.

1부 무대를 열어줄 객원지휘자 계성원은 제7회 KBS 서울국악대경연 작곡부문 금상, 제24회 대한민국 작곡상, 2010년 KBS 국악대상 작곡상을 수상한 작곡가로, 국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첫 무대는 백대웅 곡 남도아리랑으로 연다. 이곡은 한·중·일 전통악기 연주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위해 작곡한 국악관현악곡으로 남도지방의 대표적인 민요인 진도아리랑과 밀양아리랑을 주 테마로 작곡된 곡이다. 그외 2003년 국립국악원의 한국음악창작 발표회에서 위촉받아 작곡된 곡으로, 대중음악의 경쾌한 비트감과 우리 악기의 자연스러운 음색이 조화롭게 만난 원일 곡 ‘춤, 바람, 난장’, 고대가요인 ‘공무도하가’를 모티브로, 사랑과 이별, 죽음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김성국 곡 ‘공무도하가’ 등 세 곡을 들려준다.

신명나는 우리가락과 장단이 넘치는 이준호 곡 ‘판놀음Ⅱ’으로 2부 무대를 여는 객

입장료 A석 1만원·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5, 3143

## 부산시립무용단 제73회 정기공연 新월·인·천·강

11.19(목)-20(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무용단의 파격적 변신으로 다양한 춤의 스펙트럼을 감상할 수 있는 부산시립무용단 제73회 정기공연 '新월·인·천·강'이 11월 19일과 20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현대무용가 이태상과의 만남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이번 작품은 부산이 상징하는 이미지를 토대로 현대적 기법과 표현주의적 수법이 강조된 안무를 통해 춤이 가진 추상미를 무대에서 펼쳐보인다.

해학과 유티있는 안무와 연출로 현대무용의 대중성을 이끌어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안무가 이태상은 중앙대학교 무용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후 2005년 '평론가가 뽑은 젊은 무용가 공연' 최우수 안무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신진 예술가 해외연수자, 2006년 문화관광부 주최 공연예술작품 해외진출 무용가, 2007년 아시아-유럽댄스포럼(ASEP) 무용가, 2009년 서울세계무용축제 국제공동제작 프로그램 안무가, 2011년 국립현대무용가 안무가 베이스캠프 초청안무가로 선정되는 등 국내외 다양한 무대를 통해 국내 현대무용계의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태상은 유연성과 강인한 느낌의 강세가 합해진 날렵한 춤꾼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현재 신라대학교 강사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홍경희 예술감독의 부산 창작춤을 향한 새로운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 이번 '新월·인·천·강'에는 현대무용가 이태상 외에도 제9회 한국뮤지컬대상 연출상을 수상하고 서울시뮤지컬단 단장을 역임했던 연출가 유희성이 극작과 연출을 맡아 무대의 완성도를 높인다.

프롤로그와 4개의 주제, 그리고 에필로그로 구성된 '新월·인·천·강'은 와우산 중턱에 자리한 달맞이고개와 유엔기념공원, 40계단과 산복도로, 그리고 해운대까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부산의 상징적인 명소 4곳을 동시대적 변용의 옴니버스식으로 구성, 부산시립무용단의 확장된 춤과 변모된 모습으로 부산을 위한 '新 환상곡'을 그려낸다.

무대를 여는 '프롤로그'에서는 주제의 모티브가 된 명소 4곳의 이미지가 콜라주되어 동시대와 소통하고 재조명되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다이내믹한 부산의 내일을 조망한다. 이어지는 1장 '月-와우산의 달빛'에서는 달맞이고개에서 바라본 부산의 이미지를 달의 정령들로 표현, 춤으로 구성하며 2장 '人-유엔기념공원'은 망자와 산자가 더불어 그 경계에서 공존하는 유엔기념공원을 통해 삶과 죽음, 그리고 전쟁과 평화를 그려낸다. 40계단과 산복도로 공중에 나래를 펴는 인간들의 삶에 대한 의지와 애환, 욕망을 표현한 3장 '天-40계단과 산복도로'에 이어 4장 '江-생명의 섬 그곳-깊고 뜨거운 바다'에서는 자연과 생명이 꿈틀대는 부산 바다 해운대를 모티브로 다이내믹한 부산의 모습을 표현한다. 마지막 '에필로그'에서는 흐드러지게 떨어지는



동백꽃과 월인천강의 이미지를 콜라주로 중첩시켜 신한류의 중심지인 부산과 부산시립무용단의 희망찬 미래를 기원한다.

예술감독 홍경희는 이번 무대에서 한국 춤의 특징인 내적 호흡의 순환구조와 중량감있는 은유법을 유지하며, 현대춤의 역동적 에너지를 결합해 속도의 변화와 각장의 특징을 살린 옴니버스식 구조를 구체화하여 춤 구성에 다양성과 신선함을 부여한다.

입장료 R석 1만원·S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7, 3154

## 부산시립교향악단 2015 어린이 음악회

### 이야기가 있는 상상클래식: 사운드 오브 뮤직 11.20(금)-21(토) 오전 11:00,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친근한 해설과 연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어린이 맞춤 프로그램 '악기가족 이야기'에 이어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새롭게 기획한 2015 어린이 음악회 '이야기가 있는 상상클래식 : 사운드 오브 뮤직'이 어린이들을 찾아온다.

11월 20일과 21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있는 상상클래식 : 사운드 오브 뮤직'은 이야기가 있는 표제음악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음악극 형식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집중력이 약한 어린이들에게 음악공연 관람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원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김광현이 지휘하고 뮤지컬 컴퍼니 '끼리프로젝트' 대표 변진호가 연출을 맡은 이번 무대에서는 노르웨이의 민담을 소재로 주인공 페르귄트의 모험을 음악으로 그려낸 그리그의 '페르귄트'를 비롯해 '천일야화'를 소재로 한 림스키-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친구의 아이들을 위해 유럽에 내려오는 전래 동화를 하나씩 음악으로 풀어낸 라벨 '어미거위', '사운드 오브 뮤직' 모음곡 등 음악을 통해 이야기 속 장면을 상상할 수 있는 연주곡으로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제공한다.

이번 무대에서 객원지휘를 맡은 지휘자 김광현은 서울대학교 재학 중 세계적인 거장 샤를 뒤트와에게 한국대표 신예지휘자로 발탁되어 일본 미야자키 페스티벌에서 규슈 심포니를 지휘했으며 재학생 최초로 서울대학교 60주년 기념 정기오페라 '돈 지오반니'를 지휘하는 등 일찍이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독일로 유학,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지휘과 석사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바덴-뷔르템베르

크 주 지휘자협회'에서 우수 지휘자로 선발되기도 한 김광현은 귀국 후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지휘자로 활동하다 지난 1월 원주시립교향악단 제2대 상임지휘자로 취임, 신선한 기획과 최고의 연주로 관객과 만나오고 있다.

음악회 연출을 맡은 연출가 변진호는 연희단거리패 배우 및 연습감독, 영산대학교 연기연출학과 지도강사, 동부산대학교 매직엔터테인먼트학과 신체연기 지도 강사로 있으며, 뮤지컬 'STAND BY', '모해? 모해!', '외로운 성', '진주대첩', 'Grease', '여의와 황세 그리고 유민공주' 등을 연출한 바 있다.

변진호가 대표로 있는 뮤지컬 컴퍼니 '끼리프로젝트'는 복수성을 가진 명사 뒤에 붙어 어떤 부류들이 함께한다는 뜻을 가진 접미사 '끼리'에서 가져온 말로, 연극, 뮤지컬 제작, 뮤지컬 아카데미 과정 등을 통해 함께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함께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를 널리 알리는 작업들을 가져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뮤지컬 컴퍼니 '끼리프로젝트' 배우들이 출연, 어린이들에게 이야기가 있는 클래식의 세계로 안내한다.

**입장료** 균일 2천원-단체 1천원(30명 이상)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6, 3144~5

# 부산시립합창단 제159회 정기연주회 및 제9대 수석지휘자 전상철 취임연주회 헨델의 메시아 -모차르트 편-

11.24(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합창단 제9대 수석지휘자로 취임한 전상철 지휘자 취임연주회로 마련되는 부산시립합창단 제159회 정기연주회가 11월 2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전상철 신임 수석지휘자 취임과 함께 부산시립합창단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마련한 무대는 '헨델의 메시아'. 헨델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메시아'는 찰스 제넨스의 그리스도의 탄생과 수난, 부활의 내용을 다룬 오라토리오 대본에 곡을 붙인 작품으로, 제1부 '예언과 탄생', 제2부 '수난과 속죄', 제3부 '부활과 영생' 등 총 3부로 구성 되어있다. '메시아'는 서곡으로 시작해 아리아와 중창, 레치타티보, 합창 등 다양한 형태의 음악이 연주되며 특히 선율이 아름답고 숭고해 종교음악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인류의 가장 위대한 음악유산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오케스트레이션 변화와 합창 여러부분을 솔로곡으로 편곡해 관객들에게 더욱 편하게 다가가는 모차르트의 편곡버전을 들려준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오르가니스트 윤희정과 소프라노 김경희, 메조소프라노 제화미, 테너 주종식, 베이스 문동환 등 부산시립합창단 출신 성악가들이 솔리스트로 출연, 부산시립합창단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장대한 무대를 펼친다.

솔리스트로 무대에 서는 소프라노 김경희는 부산시립합창단 소프라노 부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국내외 무대를 통해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메조소프라노 제화미는 부산시립합창단 알토 수석 단원을 역임하고 현재 서귀포 중앙교회 지휘자, 제주 성악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테너 주종식은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을 역임하고 현재 워싱턴 국립오페라단의 단원이며 매력적인 음색과 중후한 중저음의 철학적 감성을 가진 베이스 문동환은 현재 부산시립합창단 베이스 수석, 독일가

곡연구회 회원, 보이스 싱어즈 남성중창단 단원, 리조이스 중창단 리더로 활동중이다. 오르가니스트 윤희정은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후 지난 1999년 부산독주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헨델 '메시아'에 이어 마지막 무대에서는 부산시립예술단 합동공연 '부산맥아리랑'의 작가 고은하가 작사하고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한 부산출신의 대한민국 대표 여류 작곡가 김동수 가천대학교 교수가 작곡한 '부산의 하모니'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원년의 해를 맞이하는 부산시립합창단의 비전을 전해준다.

입장료 R석 1만원·S석 7천원·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8, 3147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 클래식 거장들과 함께하는 늦가을의 정취

11.27(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데이비드 로



바이올린 백주영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초청으로 마련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클래식 거장들과 함께하는 늦가을의 정취’가 11월 2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미국 뉴저지 웨스트필드 심포니와 뉴욕 그라타치엘로 극장 음악감독이자 뉴욕시티 오페라단, 뉴욕대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데이비드 로가 객원지휘를 맡아 늦가을에 어울리는 아름답고도 서정적인 곡들을 들려준다.

오늘날 가장 다이내믹하고 인상적인 아티스트로 인정받고 있는 지휘자 데이비드 로는 제1회 번스타인 국제지휘콩쿠르 파이널리스트로, 그동안 미국 뉴저지 심포니를 비롯해 릴 국립 오케스트라, 바스 노르망디 오케스트라, 로열 스코티시 국립 오케스트라, 세인트 루이스 심포니, 뉴욕 시티 발레단 등 미국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저명 오케스트라를 두루 지휘했다. 특히 오페라 분야에서도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데이비드 로는 지난 2000년에는 하이델베르크시티 오페라단 수석 객원지휘자로 주요 오페라 레퍼토리를 무대에 올려 호평받았으며,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미 의회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이번 무대의 첫 곡은 리스트의 교향시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교향시 제3번 ‘전주곡’. ‘교향시’는 음악 외적인 이야기나 묘사를 담고 있는 단약장의 곡으로 작곡가 리스트가 자신의 곡에 이름을 붙이면서 처음으로 쓰였다. 교향시 ‘전주곡’은 ‘사랑에의 욕망’, ‘생명의 폭풍우’, ‘사랑의 위안’, ‘싸움과 승리’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지는 곡은 화려한 기교적 이면에 강렬한 서정성이 엮보이는 바버의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파가니니, 킹스빌, 룽티보 등 유명 국제 콩쿠르를 차례로 석권하며 이름을 떨쳤던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현존하는 최고의 작곡가이자 마에스트로인 펜데레츠키로부터 ‘안네 소피 무터의 뒤를 이을 바이올린의 여제’라고 극찬받은 백주영은 지난 2000년 뉴욕 Young Concert Artists 국제 오디션에서 450여 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우승한 후 뉴욕과 워싱턴에서 성공적인 데뷔 독주회를 가졌으며, 2002년 5월 뉴욕 카네기홀과 링컨센터에서 열린 뉴욕 챔버 오케스트라 협연에서 당시 뉴욕 필하모닉 음악감독 쿠르트 마주어에게 극찬을 받으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백주영은 지난 2005년에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최연소 교수로 부임해 화제를 모았으며, 활발한 연주활동과 함께 후진양성에도 힘써오고 있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 곡은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와 더불어 가장 많이 연주되고 있는 드보르작 교향곡 제8번 작품 88. 1892년 영국에서 출판해 ‘영국 교향곡’이라고도 불리는 교향곡 제8번은 화사하면서도 목가적인 반면, 놀랄만큼의 깊은 심연이 도사리고 있는 작품으로, 슬라브 민족 특유의 감정이 잘 나타나 있다.

**입장료** R석 2만원·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6, 3144~5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4회 정기연주회 오인오색

하순봉 작곡가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16일 저녁,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514회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최근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지휘자 리신차오의 거취문제로 어수선한지라 이번 연주는 더욱 관심이 갔었다.

무대는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색다른 악기배치로 처음부터 어떤 의욕을 보여주는 듯 했다. 이 날은 한 마디로 다섯 남자가 빚어내는 오인오색의 음악이었다. 작곡가 프로코피에프와 라흐마니노프, 졸리베 그리고 협연자인 드미트리 로카렌코프와 지휘자 리신차오가 만든 맛있는 오색의 힐링푸드였다. 거기다 각자 다른 세 가지 재료인 고전과 낭만, 현대를 다 섞어서 더욱 즐겁고 맛있는 소리의 성찬이었다.

프로코피에프의 제1번 고전교향곡은 젊은 작곡가의 패기와 기발함이 과장되지 않게 잘 드러난 걸작으로서 이 날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도 균형을 잃지 않은 세련됨으로 일관하여 깔끔한 에피타이저 같았다.

두 번째 트럼펫 협주곡은 소위 '젊은 프랑스' 멤버 중의 한 사람인 졸리베의 작품이다. 졸리베는 대중적이진 않지만 특이한 작풍과 실험성으로 잘 알려진 전위적인 작곡가이다. 특히 다양한 협주곡들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 이 트럼펫 협주곡도 정규오케스트라가 아닌 목관과 피아노, 하프, 타악으로만 된 실내악 편성으로 곡의 길이도 짧은 아주 실

내악적인 그런 협주곡이다. 이 곡은 시종일관 트럼펫의 악음기에 의한 음색을 많이 사용하여 재즈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재미있고 신선한 작품이었다. 이런 현대음악의 무정형성과 색다른 기발함은 감상의 또 다른 큰 즐거움이다. 개인적으로 이런 현대작품이 더 자주 연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협주곡은 각 파트의 수석주자들이 맡아서 더욱 의미있고 시민들에게도 보다 친숙함을 주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이 날도 트럼펫 수석인 드미트리 로카렌코프가 명연주를 들려주었는데 세 번의 커튼 콜은 그의 인기를 짐작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이 날의 대미인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제2번! 설명이 필요 없는 그의 최대의 대작이자 이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작품이다. 사실 라흐마니노프와 프로코피에프는 동문출신으로 학창시절 라이벌이기도 하다. 둘 다 망명을 떠나 음악생활을 하는 등 삶의 궤적은 비슷하지만 음악의 노선은 달랐다. 라흐마니노프는 프로코피에프와는 달리 20세기에서도 낭만의 노선을 유지하다가 마지막으로 낭만에의 일별을 고한 작곡가이다. 혹자는 퇴행적이라고 평할진 몰라도 그의 음악은 그 특유의 유장하고 깊은 선율로 지금도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2번은 1번의 실패를 딛고 나온 작품이라 온갖 신산고초를 다 겪은 작곡가의 삶에 대한 관조가 보이는 작품이다.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들이 라흐마니노프가 되어 그의 고뇌를 대변한다. 때로는 몰아치고 포효하고 그리고 침잠하고... 마침내 곡이 끝난 다음에는 많은 이들이 기립박수로 그 감동에 화답하였다. 가을밤을 수놓은 감동적인 음악회였다.

무릇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자리잡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조건들이 필요하다. 우리도 좀 더 성숙한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되기를 바라며 계속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시립애(愛) 빠지다 - 결국 가야할 길

심상교 부산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양지웅을 난해한 연극인으로 생각했다. 말이 좋아 난해지 사실, 자기 예술관이 확고하지 못한 연출이라 생각했다. 자기 연출 세계를 정립하려는 그간의 작업은 그야말로 사상누각과 다를 바 없어 우왕좌왕하는 연출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 부산시립극단의 '위대한 낙하'를 보면서 양지웅의 그간 작업이 정말 치열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부산시립극단의 '위대한 낙하'는 양효윤 연출에 양지웅 구성이었다. 구성을 맡은 양지웅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곳곳에서 양지웅 냄새가 '풀풀' 났다.

1-드라마가 들어간 영상을 활용했다는 점, 2-죽음을 주제로 이끌었다는 점, 3-서사적 요소보다 언버벌적 요소를 더 중시했다는 점, 4-삶을 통찰하되 통찰의 관점을 모호하게 했다는 점, 5-오브제도 배역만큼의 비중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양지웅 냄새가 확연했다. 이 다섯가지는 그의 작품에 나타난 공통된 특징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요소들은 조화되지 못한 편린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각각의 요소는 의미 있지만 나열될 뿐 조화되지 않는 인상이 강했다.

그런데 이번 부산시립극단과의 작업을 통해 양지웅의 이런 요소들은 정밀해졌고, 조화로워졌다. 그간의 노력이 엄청난 부피와 무게로 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양지웅에게 부산시립극단은 정말 행운이었다.

부산시립극단이 좋은 작품을 만드는 이유는 배우들 개인의 뛰어난 연기력과 더불어 오랫동안 함께 작업한 배우들 사이에 형성된 익숙함 때문일 것이다.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과 배우 상호간의 익숙함이 융합되면 그 작품은 연출의 해석을 뛰어 넘는 작품이 될 것이다. '위대한 낙하'도 부산시립극단 배우들의 익숙함이 만들어 낸 능숙한 호흡이 아니었으면 아마, 허공에 흩어지는 이름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염지선과 배우들, 이현주와 배우들, 황창기와 이혁우 간의 익숙함은 '위대한 낙하'의 난해성을 풀어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게다가 움직이는 음향, 배우들 신체조건을 살린 안무, 등장인물의 심리상태를 풀어낸 조명, 서사가 배제된 내용에 맞는 의상이 곁들여지면서 '위대한 낙하'는 부산시립극단의 드문 완성작이 되었고 양지웅을 부산연극의 소중한 자산목록에 올리는 역할도 하였다.

'위대한 낙하'는 '충구'라는 젊은 사람의 자살을 다루었다. 보통의 작품은 젊은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의 원인을 따지고 밝혀나간다. 이 과정에서 사건은 얽히고 새로운 갈등이 만들어지고 서사가 형성된다. '위대한 낙하'는 이러한 서사형성을 차단했다. 한 인간의 죽음을 보는 건조한 시선과 죽음에 이르는 인물의 치열한 내적 갈등만 부각시켰다. 시선과 내적 갈등도 사건형성의 도화선이 될 수 있지만 '위대한 낙하'에서 도화선에 불이 붙는 긴장은 없다. 1950년대 군중속의 고독이라는 의미가 확산되면서 부조리극이 꽃을 피웠다. 60여 년이 지나 '위대한 낙하'는 다시 군중속의 고독과 그런 삶을 이야기했다. 부조리극과 다른 어떤 연극 흐름의 전조이기를 희망한다.



###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 설립자 가경자선포 기념음악회

일 시 | 11월 1일 일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마리아수녀회 후원회 250-5406~5410



지난 1월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가경자(시복 후보자)로 선포된 '소년의 집' 설립자 소 알로이시오 몬시놀(1930~1992)의 가경자선포를 기념해 마련하는 기념음악회.

'가경자'는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신앙과 덕행이 뛰어난 사람이 죽었을 때, 시복 전 단계에서 복자 후보자에게 잠정적으로 주던 경칭이다. 소 알로이시오 몬시놀은 1957년 6월 시제품을 받은 직후 부산교구로 입적, 부산과 서울에 '소년의 집'과 '소녀의 집'을 설립하고 1964년 부산에서 마리아수녀회를, 1981년 5월 서울에서 그리스도수도회를 창설했다. 이날 무대에서는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지휘/박진), 알로이시오 합창단(지휘/전선하), 프란치스코 합창단(지휘/권영욱)이 출연하며, 음악회 수익금은 마리아수녀회 가족공동체 운영기금으로 쓰여진다.

### 동의대학교 예술종합 콘서바토리 한국음악과 제7회 정기연주회 동의新풍류

일 시 | 11월 1일 일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엄익준 010-3554-9396



동의대학교 예술종합 콘서바토리 한국음악과 재학생들과 지도교수들이 펼치는 제7회 정기연주회. 우리 음악의 멋과 신명을 선보이는 이번 무대는 국악의 한계를 벗어나 세계와 현대를 넘나들며 전 세대가 함께 호흡하는 무대를 펼친다.

- 지휘/엄익준(동의대학교 예술종합 콘서바토리 객원교수)
- 사회/최영동(동의대학교 예술종합 콘서바토리 외래교수)
- 협연/김재범(색소폰), 장두병(대금), 김지원, 김순지, 노희용, 박정희, 한종국, 이수연, 유은주, 장윤영, 황금순(민요), 허애명, 김재영, 김해숙, 손경숙(판소리), 김용조, 김태근, 이명찬, 안경선, 남한나(타악)
- 객원출연/윤해인, 안하윤(피리), 문신애(첼로), 노은주(신디사이저)

### 제3회 월드브리지 필하모닉 정기연주회 with 부산의 특별한 가족들

일 시 | 11월 2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 25만원, R석 20만원, S석 10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월드브리지 필하모닉 010-3074-0366



국내 유일의 문화적, 지역적 소외계층 출신의 재능 있는 연주자들로 구성된 월드브리지 필하모닉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부산 출신 연주자들로 이루어진 대규모 연주단체인 월드브리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지난 1월 창단연주회 이후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최고의 연주를 통한 화합과 나눔의 감동을 전하는 대표적인 민간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상임 지휘를 맡은 지휘자 박성민은 한국 지휘자 최초로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데뷔한 후 프로코피에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동양인 최초 종신 지휘자로 임명되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 악장/백재진
- 협연/신시아 트리오(피아노 김은정, 바이올린 손은혜, 첼로 김지혜), 바이올린 천니은

### 양경아 바이올린 독주회 Season to remember

일 시 | 11월 2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지리레프 02-515-5123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이자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악장, JK 앙상블, 아미쿠스 피아노 콰르텟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 독주회.

미국 맨하튼 음대에서 학사 및 석사, 메릴랜드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양정아는 카네기 웨일홀에서 뉴욕 데뷔 독주회를 시작으로 수차례 독주회를 가졌으며, UBS Verbier Festival Orchestra 단원으로 James Levine, Charles Dutoit와 아시아, 유럽투어 등을 통해 오케스트라와 실내악 활동 또한 왕성하게 펼쳤다.

- 양정아는 귀국 후 예술의전당, 금호아트홀, 세종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등에서 꾸준한 독주회와 실내악 연주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바이올린/Wayne Lin, 이선영
  - 비올라/Dale Kim
  - 첼로/이예성
  - 콘트라베이스/김진철

###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제1회 반주전공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2일 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고신대학교 교회음악학과 990-2231  
 우리아트 920-9545



정은경, 류희은, 김선미, 김현정, 이효선, 강지원 등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반주전공자들이 마련하는 첫 번째 정기연주회.

- 1부 이태리 고전가곡에 이어 2부에서는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의 주요 아리아를 반주전공자들의 연주에 맞춰 성악가들이 들려준다.
- 지도교수/홍지혜, 유희정
  - 반주/정은경, 류희은, 김선미, 김현정, 이효선, 강지원
  - 특별출연/소프라노 김하나, 메조소프라노 손혜은, 테너 안진혁, 곡성민, Sunia Soko Loga, 바리톤 윤오건, 구성범, 김정민

### 2015년 대한민국-우크라이나 국제교류음악제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기념 그랜드 갈라 콘서트

일 시 | 11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S석 5만원, 일반 3만원  
 문 의 | 김영근 010-9168-9434



2015년 국제교류음악제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 김영근이 지휘하는 우크라이나 르브프 필하모닉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2015년 대한민국-우크라이나 국제교류음악제.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기념 그랜드 갈라 콘서트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박상희, 고예정, 마몬토바 스베틀라나, 메조소프라노 김수현, 테너 강학운, 조윤환, 바리톤 강경원, 문휴원, 청솔합창단이 출연, 유명 오페라 아리아 및 가곡, 민요 등을 들려준다.

- 지휘/김영근
- 특별출연/바리톤 문휴원, 김나윤(바이올린, 대전 용산초 5학년)



## 2015 SMR Entertainment

일 시 | 11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SMR Entertainment 010-5715-6627



상악가 김도형을 대표로 우리 주변에 잊혀져 가는 아련하고 그리운 기억들을 추억하며 그 소중함을 공감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 결성된 SMR 성악회의 첫 번째 무대.

단체명 'SMR' 은 'Something Must be Remembered'의 약자로 잊지말아야 할 것들의 기억을 되살리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이름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고신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김해시립합창단 단원으로 있는 소프라노 류지은, 동의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사하구 장미여성합창단 트레이너, 호산나교회 글로리아성가대 솔리스트로 있는 소프라노 김민정, 신라대학교 음악학과 및 부산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김해시립합창단 단원으로 있는 소프라노 백성희의 'Three Sopranos Ensemble' 무대가 펼쳐진다.

• 피아노/김신정, 이혜진

## 님의 예술혼, 상생으로 통(通)하다!

일 시 | 11월 4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팀 745-7233



부산문화재단과 부산예총, 부산민예총이 공동주관하고 부산의 명망 있는 원로 예술인들과 후배예술인들이 함께 하는 공연예술의 향연 '님의 예술혼, 상생으로 통(通)하다!'.

원로예술인, 후배예술인들의 협업을 통한 합동공연을 통해 원로예술인들의 업적을 고양하고 지역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높이는 무대로 클래식, 중창, 국악, 무용, 풍물, 브라스밴드 등 다양한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브라스밴드 공연, 피아노 트리오, 통영입춤, 창극 '일쑤 흥보 부자됐다네 절쑤', 피아노 듀오, 창작무 '여인의 길방', 혼성4중창, 지선춤, 풍물만국

## 소리꾼 최윤영 작곡발표회 아리랑! 부산에서 꽃 피우다

일 시 | 11월 4일 수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최윤영 010-9184-9619



단국대학교 국악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경상도 민요보존회 대표,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2호 향두계놀이 이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소리꾼 최윤영 작곡발표회.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 지난 2010년 국립부산국악원 단원으로 재직하며 고향의 소리인 경상도 토속민요에 심취하면서 농청소리 보유자인 서옥연 선생, 학춤유 유금선 선생을 사사한 최윤영은 이후 경상도 민요보존회를 설립, 경상도의 민요를 채집, 발굴하여 무대에 올리는 등 경상도 민요의 지킴이로 묵묵히 길을 걷고 있다.

이번 무대는 최윤영이 각 구마라의 전설과 전해져오는 이야기, 설화 등을 모티브로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 연주곡, 노래곡, 합창곡 등을 발표하는 자리이다.

## 진형준 피리 독주회

일 시 | 11월 5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진형준 010-8523-8518



부산대학교 한국음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으로 있는 진형준의 피리 독주회.

그동안 독주회를 비롯해 부산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국악제, KBS TV문화속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진주시립전통예술단과의 협연, 청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국악콘서트, 피리정악보존회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진형준은 중요무형문화재 중요제례악 이수자, 정악 및 대취자 이수자, 승전무 전수자, 美토리 대표, TODA 동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지역희류 피리산조  
 진도씻김굿  
 • 게스트/박환영(소리, 장구), 최오성(징), 이종혜(대금), 윤해승(해금), 이혜나(소리), 김명희(거문고), 정선경(이징)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오페라 인 콘서트 몬테베르디 오페라 '오르페오'

일 시 | 11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재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6, 31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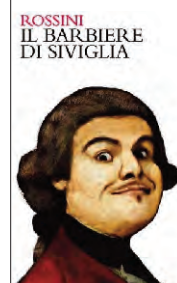


음악사상 최초의 본격적인 오페라로 알려져 있는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오르페오'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부산 초연무대로 선보이는 오페라 '오르페오'는 페리와 카치니가 작곡한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오페라 '에우리디체' 이후 최초의 걸작 오페라로, 1597년 지금은

악보가 유실되고 없는 최초의 오페라 '다프네(Dafne)'가 만들어진 이후 근대적인 개념의 오페라로는 처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휘자 김주현이 지휘와 연출을 맡고 지난 7월 서울 시오페라단 국내초연무대에서 주역으로 무대에 올랐던 바리톤 한규원, 소프라노 정혜옥, 베이스 박준혁과 소프라노 정혜민, 바리톤 박대용, 챔발로 연주자 손소향, 그리고 부산시립합창단이 출연한다.

## 롯시니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일 시 | 11월 6일(금)-7일(토) 오후 7:30  
 8일(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R석 15만원, S석 10만원, A석 8만원,  
 B석 5만원, C석 3만원  
 문 의 | 솔오페라단 1544-9373



로맨틱 코믹 오페라의 최고 봉으로 꼽히는 롯시니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의 전편에 해당하는 '세빌리아의 이발사'는 젊고 유능한 알바비 백작과 아름답고 영리한 로지나가 여러 가지 사건과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

하는 19세기 로맨틱 코미디로, 풍부한 선율과 활기찬 생동감, 고난도의 성악적 기교를 통한 세련된 선율미로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작곡가 겸 지휘자 박지운이 지휘하고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연출가 잔도메니코 바카리가 연출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다니엘라 브루에라, 박현정이 로지나를, 테너 블라고이 니코스키, 장진규가 알바비 백작을, 바리톤 미켈레 고비, 윤오건이 피가로, 베이스 마테오 다포르토가 바르톨로 역을 맡아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Program Guide >>>

### 2015년 경성대 평생교육원 제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강학윤 010-9287-6350



평생교육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개개인의 자아개발과 능력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가곡교실 수강생들이 마련하는 제2회 정기연주회. 지난 2011년 이후 지금까지 가곡부르기를 즐기는 아마추어 성악가들의 배움터로, 성악가 강학윤의 지도로 음악수업을 받아온 수강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 김효근/눈
- 베토벤/그대를 사랑해
- 이안삼/가을들녘에 서서
- 커티스/돌아오라 소렌토로 등 수곡
- 지도교수/강학윤 • 피아노/주은정
- 소프라노/권미정, 이윤자, 김보경, 박순희
- 테너/양수배 • 바리톤/석인재, 조철

### 부산가톨릭합창단 제37회 정기연주회 하이든 '큰북 미사곡(Pauken Messe)'

일 시 | 11월 7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부산가톨릭합창단 010-5060-4744

지난 1982년 부산교구 연합성가대로 창단된 부산가톨릭합창단의 제37회 정기연주회. 하이든의 후기 미사곡 중 첫 곡이자 그의 생애 9번째 미사곡인 '큰북 미사곡'은 1796년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를 침공했을 당시 작곡됐으며, 곡 중 예기치 못한 드럼의 두드러진 연주 때문에 이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 지휘/이성훈
- 연주/르 브리즈 챔버 오케스트라
- 협연/소프라노 강혜정, 메조소프라노 정수연, 테너 김성진, 베이스 조규희, 피아노 이민아, 오르간 이효진



### 음반발매기념 박성희 수궁가 완창 발표회

일 시 | 11월 8일 일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원  
 문 의 | 박성희판소리연구소 583-0832



미산제 박초월제 수궁가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부산의 대표 소리꾼 박성희가 부산에서 최초로 '미산제 수궁가'를 음반으로 발매하면서 마련하는 수궁가 완창 발표회.

미산 박초월제 수궁가는 아주 절묘한 성음과 기량을 지닌 소리꾼이 오랜 공력을 들인 뒤에야 완성할 수 있는 소리로, 박성희 명창은 이번 무대에서 상하청을 자유롭고 명료하게 넘나드는 천부적인 목성과 자신만의 장기인 유려한 발림과 재담으로 미산제 수궁가의 진면목을 선사한다. 제12회 장흥전통가무악전국제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후에도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다양한 음악색깔로 관객과 만나온 박성희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국악전문단체 '타로' 공동대표, 박성희판소리연구소 대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교수/김정만, 신문범

### 김지민 피아노 리사이틀 가을, 낭만 그리고 발라드

일 시 | 11월 9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지민 010-7442-7627



신라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KA(전문연주자과정)를 졸업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지민 독주회.

김지민은 독일과 부산에서의 독주회를 비롯 금정문화회관 청소년을 위한 수요일회 초청독주회,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 정기연주회, 부산피아노유모협회 정기연주회, 부산음악협회 피아노 그랜드 페스티벌, 독우회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었다.

**[프로그램]**

- 브람스/6개의 피아노소품 작품 118, 제2, 3번 리스트/발라드 제2번 나단조 S. 171 쇼팽/발라드 제1번 사단조 작품 23, 제3번 내림가장조 작품 47, 제4번 사단조 작품 52

### 예그리나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황금연못의 메아리

일 시 | 11월 11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예그리나합창단 010-4567-6527

현직에서 은퇴하고 합창을 통해 아름답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는 혼성4부 실버합창단인 예그리나합창단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2014년, 2015년 전국환경노래경연대회에서 두차례 은상 수상과 2014년 10월 국립합창단이 주관하는 전국 골든에이지 합창경연대회에 부산대표로, 지난해와 올해 11월 부산합창제에 출연해 그 실력을 인정받은 예그리나합창단은 올해 7월 방송된 KBS '국민대합창 우리가(歌)'에 출연, 시청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8월에는 KBS 광복70주년 국민대합창 '나는 대한민국에 초청받아 삼암 월드캠핑장 무대에 서기도 했다.

- 단장/이영해 • 지휘/강종철 • 피아노/이현숙



### 브라스타 창단연주회

일 시 | 11월 11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브라스타 010-7622-1311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트럼펫 김형진, 전지은, 호른 이시원, 트롬본 강진석, 튜바 조상혁 등 금관악기 연주자 5명과 타악기 주자 서봉진으로 결성된 브라스타 창단무대.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화려하면서도 웅장한 금관악기의 매력을 전해주기 위해 결성된 브라스타는 이번 무대에서 포레의 파반느(Pavane), 거쉰의 '파리의 미국인(American in Paris)' 등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에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모음곡, 엔니오 모리코네 메들리, 블루스 포 브라스 등 영화음악, 재즈 등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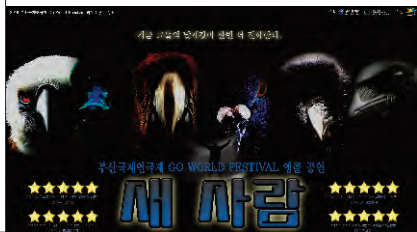
고 월드 페스티벌 수상작 앵콜공연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새 사람(Bird Man)'

일 시 | 11월 11일(수)~13일(금) 오후 8:00,  
14일 토요일 오후 4:00,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 의 |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010-9117-7453

지난 5월 열린 제12회 부산국제연극제에서 좋은 작품을 놓친 관객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마련하는 고 월드 페스티벌 수상작 앵콜공연.

부산국제연극제 경연부문의 'Go World Festival'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새 사람(Bird Man)'은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채 하늘을 나는 방법을 잊어버린 비둘기의 모습을 현대인에 빗대어 재미있게 그려낸 작품이다.

- 작/공동창작 • 연출/이현
- 출연/이현, 성주원, 임희선, 김경민, 박강설, 김문호



부산심포닉밴드 제13회 정기연주회  
관·현 국악의 만남

일 시 | 11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부산심포닉밴드 010-9966-9063

지난 2004년 부산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관악전공자 50명의 열정으로 탄생된 부산, 경남 최대의 관악단인 부산심포닉밴드의 정기연주회.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대장경 세계문화축전 초청음악회, 한국-인도 수교 40주년 기념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참신한 기획과 실험정신으로 호평받아온 부산심포닉밴드는 이번 무대에서 관악 특유의 웅장함이 현악과 국악의 만나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이규준
- 협연/김병림(바이올린), 김가영(비올라), 전자인(해금), 정유정(경기민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71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일 시 | 11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6, 3144-5



부산지역 음악전공자들의 등용문으로 각광받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청소년 협주곡의 밤, 오디션을 거친 청소년 유망주들이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김범수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한다.

- 지휘/김범수(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이건혁(첼로, 신도초 5학년), 백지윤(플루트, 인제대 4학년), 부상현(호른, 경성대 3학년), 심재영(바이올린, 부산예중 3학년), 동이름(피아노, 부산대 4학년), 김성준(트럼본, 경성대 1학년), 이현송(미림바, 부산예중 2학년), 배유경(바이올린, 부산예고 2학년)

이자벨 베르네 초청 독창회

일 시 | 11월 13일 금요일 오후 8:0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화예매시 1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세계적인 지휘자 로린 마젤이 극찬한 유럽 최정상 소프라노 이자벨 베르네 초청무대.

폭발적인 가창력과 오페라 무대에서 단련된 연기력을 갖춘 이자벨 베르네는 지난 1990년 낭트 오페라극장과 독일의 Ludwigshafen에서 데뷔무대를 가진 후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부산 출신의 테너 정필립과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프랑스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주요 레퍼토리로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오스카 슈트라우스/세계의 왈츠곡  
앙리 뒤파르크/유언, 엘레지, 파도와 증  
생상/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그대 음성 내 마음 열리고' 등 수곡

- 특별출연/테너 정필립
- 피아노/박미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1회 정기연주회  
깊은 가을 국악의 향기

일 시 | 11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5, 3143

깊어가는 늦가을의 정취를 아름다운 국악선율로 들려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1회 정기연주회 '깊은 가을 국악의 향기'.

국악계 중견지휘자로 왕성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휘자 계성원, 이정필의 객원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특히 서양음악에 치우쳐 있는 음악계의 현실 속에서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독창성 있는 국악 창작곡으로 우리음악의 멋과 신명을 관객들에게 전해준다.

1부 무대를 열어줄 객원지휘자 계성원은 제7회 KBS 서울국악대경연 작곡부문 금상, 제24회 대한민곡 작곡상, 2010 KBS 국악대상 작곡상을 수상한 작곡가로 현재 국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2부 무대를 여는 객원지휘자 이정필은 부산대학교 휴원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예술감독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시민공원 문화 총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 객원지휘/계성원, 이정필

2015 고신대학교 음악학과 정기연주회  
헨델의 메시아

일 시 |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고신대학교 음악과 990-2231, 2283



하이든 '천지창조', 멘델스존 '멜리야'와 더불어 세계 3대 오라토리오로 꼽히는 헨델의 메시아로 마련되는 고신대학교 음악학과 정기연주회, 헨델의 작품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곡으로, 복음서와 이사야서, 시편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수

난을 담고 있는 '메시아'는 '천상의 소리'라는 장중한 면서도 아름다운 선율로 종교와 상관없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지휘/안민
- 오르간/이혜영
- 챔발로/김미나
- 소프라노/김나영, 박연경
- 앨토/강희영, 이선미
- 테너/이홍길, 이승우
- 베이스/양재원, 최판수
- 합창/고신대학교 합창단, 동문합창단
- 협연/코람데오 오케스트라

### 피아니시모 제9회 정기연주회 '파리의 가을'

일 시 |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피아니시모 음악연구회  
 010-9238-2411, 010-8533-9662



지난 2010년 회장 이은형을 중심으로 17명의 현직 피아노 교사들로 창단한 후 함께 모여 연구하며 연주무대를 가져온 피아니시모 음악연구회의 9번째 정기연주회.

피아니시모 음악연구회는 2010년 제1회 정기연주회 '제자와 함께하는 음악회'를 시작으로 매년 주제가 있는 정기연주회를 가져왔으며 거제교회 드림센터 개관기념 초청연주, 통영 국제음악제 프린지 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시모 음악연구회 고문으로 있는 피아니스트 최재영의 해설로 인상주의 시대 음악가인 드뷔시, 라벨, 샤브리에, 미요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 연주/강주영, 김아림, 김미량, 김영은, 서소라, 이은형, 김아림

### 제47회 인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및 창단 20주년 기념연주회 Choral

일 시 | 11월 15일 일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청소년 50% 할인)  
 문 의 | 인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626-8081,  
 010-8918-1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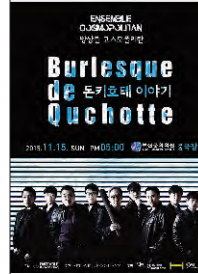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은 인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의 창단 20주년 기념 무대.

지난 1996년 학연과 지연을 초월한 유능하고 열정있는 연주자들로 구성된 인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는 그동안 46차례 정기연주회와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음악회, 대형오페라 연주, 도시락보내기 등 자선음악회, 공간 위탁 초청연주, 시민을 위한 순화외 음악회 등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 [프로그램]**  
 브루흐/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베토벤/교향곡 제9번 '합창'  
 • 지휘/윤상운(음악감독, 동의대학교 교수)  
 • 협연/한수진(바이올린), 고예정(소프라노), 박소연(메조소프라노), 조운현(테너), 강경원(바리톤)

### 양상블 코스모폴리탄 돈키호테 이야기

일 시 | 11월 15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아트 에베뉴 컴퍼니 070-8200-8476



지난 2010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 이일세를 중심으로 서울에서 창단된 앙상블 코스모폴리탄의 무대.

바이올리니스트 조무중, 안은탁, 박원서, 송범석, 비올리스트 신요한, 성정인, 첼리스트 이일세, 박준현, 콘트라베이스 이호영 등 남성 연주자들로만 구성된 앙상블 코스모폴리탄은 성남아트센터에서의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바로크에서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주고 있다. 앙상블 코스모폴리탄은 그 이름의 의미대로 세계로 향하며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중이다.

- [프로그램]**  
 엘가/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세레나데 작품 20  
 바흐/바이올린 협주곡 마장조 BWV 1042  
 텔레만/돈키호테 모음곡  
 R. 스트라우스/돈키호테 중 '돈키호테의 죽음'  
 • 음악감독/이일세 • 악장/조무중  
 • 명예 예술감독/리 신차오

### 부산시립무용단 제73회 정기공연 '新월·인·천강'

일 시 | 11월 19일(목)~20일(금)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S석 5천원(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무료 예매 이벤트, 이후 R석 50%, S석 4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7, 3154)



부산시립무용단의 파격적 변신으로 다양한 춤의 스펙트럼을 감상할 수 있는 부산시립무용단 제73회 정기공연 '新월·인·천강'.

예술감독 홍경희와 해학과 유티있는 안무와 연출로 현대무용의 대중성을 이끌어 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안무가 이태성이 공동 안무

하고 서울시뮤지컬단 단장을 역임한 연출가 유희성이 극작과 연출을 맡아 무대의 완성도를 높인 이번 작품은 와우산 중턱에 자리한 달맞이고개와 유엔기념공원, 40계단과 산복도로, 해운대까지 동시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부산의 상징적인 명소 4곳을 동시대적 변용의 오피니언으로 구성, 부산시립무용단의 확장된 춤과 변모된 모습으로 부산을 위한 '新환상곡'을 그려낸다.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14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일 시 | 11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015, 3146)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단원 내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우수 단원들에게 협연 기회를 제공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14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화려한 기교를 바탕으로 한 협연자들의 뛰어난 기량을 통해 관객들에게 다양한 악기군의 협주곡을 들려준다.

- 지휘/김범수(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방보민(오보에, 부산예고 2학년), 정준용(더블베이스, 부산대 3학년), 김한솔(첼로, 인제대 4학년), 이예서 & 김초롱(바이올린&비올라, 경성대 졸업), 김성준(클라리넷, 경성대 3학년), 김성원(트럼본, 부산예고 2학년)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공연 2015 어린이 음악회 '이야기가 있는 상상클래식 : 사운드 오브 뮤직'

일 시 | 11월 20일(목)~21일(토)  
 오전 11:00, 오후 4: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단체 30명 이상 균일 1천원)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6, 3144~5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새롭게 기획한 어린이 맞춤 프로그램 2015 어린이 음악회 '이야기가 있는 상상클래식 : 사운드 오브 뮤직'. 원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김광현이 지휘하고 뮤지컬 컴퍼니 '까리프로젝트' 대표 변진호가 연출을 맡은 이번 무대는 이야기가 있는

- 표제음악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음악극 형식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제공하고 집중력이 약한 어린이들에게 음악공연 관람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 객원지휘/김광현(원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 연출/변진호
  - 연기/뮤지컬 컴퍼니 '까리프로젝트'

## 제3회 부산학생연합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음악회

일 시 | 11월 22일 일요일 6: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천원(수익금 전액 사회기부)  
 문 의 | 부산학생연합 오케스트라  
 010-9984-7169

...  
 지난 2014년 3월 음악교육을 통해 정서 함양과 단체활동의 협동심을 키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부산, 울산, 경남권 학생들로 결성된 연합오케스트라인 부산학생연합 오케스트라가 마련하는 사랑나눔 음악회.  
 지난해 6월 첫 정기연주회를 통해 첫발을 내딛은 부산학생연합 오케스트라는 매년 1~2회 이상의 재능기부 연주회를 통해 얻는 수익금을 전액 사회에 기부하고, 문화소외계층 시민들이 무료로 연주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무대를 기획, 마련해오고 있다.

## 연극 '로맨틱 vs 코미디'

일 시 | 11월 22일 일요일 오후 7:00  
 23일(월)-26일(목) 오전 9:00, 10:00  
 11:00(단체공연),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사랑티켓 참가작)  
 문 의 | 교육극단 놀이터 010-3274-5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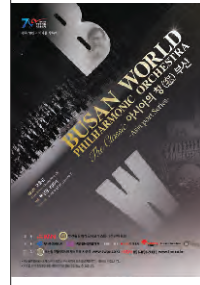


다르지만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남녀를 통해 같이 소통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연극 '로맨틱 vs 코미디'. 로맨틱만 쓰는 여자 작가와 코미디만 연출한 남자 감독, 어느날 영화사로부터 두 작품을 섞어 로맨틱 코미디를 써오면 밀어주겠다는 제인에 피디는 남자 감독과 여자 작가를 한 달 동안 합집에서 살며 로맨틱 코미디 시나리오를 쓰게 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른 남과 여를 통해 남녀차이를 유쾌하게 표현,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 작/오승일
- 연출/이명건
- 출연/송준승, 허민경, 최창준

## 2015 7th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Asia port Series 광복70년-미래를 향하여 The Classic-아시아의창(窓) 부산

일 시 | 11월 23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문 의 | KNN 850-9333



유럽과 미국, 러시아 등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 경남 출신의 연주자들과 국내 연주자들로 결성된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홍콩, 대만, 마카오, 일본, 그리고 한국 등 아시아 5개 항구도시 오케스트라를 잇는 아시아 포트 시리즈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제우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및 소속 작곡가로 활동하는 대만의 작곡가 리체이, 삼육대학교 교수로 있는 한국 작곡가 박정양, 폴란드의 세계적인 작곡가 펜데레츠키 등 3명의 작곡가들이 한국과 아시아를 자신의 음악언어로 표현한 특별한 곡을 들려준다.

- 예술감독, 지휘/오충근
- 연주/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BWPO)
- 작곡/박정양, 리체이, 펜데레츠키

Program Guide >>>

## 2015 IPB 제4회 정기연주회 'REFORM'

일 시 | 11월 23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IPB 010-9610-9465



...  
 지난 2012년 창단된 후 국내 최고의 앙상블로 발돋움하고 있는 (사) 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IPB)의 무대.

세계 우수 오케스트라 리더를 초청, 객원악장 체제를 유지하는 IPB는 2012년 8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 토모 켈러와의 창

단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후 베를린 필하모닉 악장 안드레아스 부샤츠와의 정기연주회로 그 실력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 객원악장/Frank Stadler(모짜르트 오케스트라 잘츠부르크 악장)
- 바이올린/이리나, 이광식, 방효준, 원형준, 장은아, 박민경
- 비올라/김가영, 임정은, 한동민
- 첼로/양욱진, 김기도, 김새로미, 변은석
- 더블베이스/박희철 • 피아노/석민선

## 부산시립합창단 제159회 정기연주회 및 제9대 수석지휘자 전상철 취임연주회 헨델의 메시아(모차르트 편)

일 시 | 11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8, 3247

...  
 부산시립합창단 제9대 수석지휘자로 취임한 전상철 지휘자 취임연주회로 마련되는 부산시립합창단 제159회 정기연주회 '헨델의 메시아(모차르트 편)', 헨델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메시아'는 찰스 제넌스의 그리스도의 탄생과 수난, 부활의 내용을 다룬 오라토리오 대본에 곡을 붙인 작품으로, 제1부 '예언과 탄생', 제2부 '수난과 속죄', 제3부 '부활과 영생' 등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오르가니스트 윤희정과 소프라노 김경희, 메조소프라노 제화미, 테너 주중식, 베이스 문동환 등 부산시립합창단 출신 성악가들이 솔리스트로 출연한다. 헨델 '메시아' 공연에 이어서는 부산에서 활동중인 '부산 맥이리링'의 작가 고은하와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한 부산출신의 대한민국 대표 여류 작곡가 김동수의 위촉곡 '부산의 하모니'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원년의 해를 맞이하는 부산시립합창단의 비전을 관객들에게 전한다.

## 세계적인 바리톤 고성현 오페라 아카데미 갈라 콘서트 아름다운 클래식 여행

일 시 | 11월 25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 10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문 의 | 우리아트 920-9545



...  
 해외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한국 바리톤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바리톤 고성현의 오페라 아카데미 갈라 콘서트.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후 이탈리아로 유학, 밀라노 G. Verdi 국립음악원, 밀라노 La Scala 아카데미, 오지모 아카데미를 졸업한 고성현은 푸치니 국제콩쿠르, 밀라노 국제콩쿠르, 나비부인 국제 콩쿠르, 독일 슈트트가르트 오페라 극장 국제 콩쿠르 등 각 유명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국내에서도 난파음악상, 젊은 음악가상, 옥관문화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한양대학교 교수로 있는 고성현은 이번 무대에서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푸치니 '토스카'의 주요 아리아와 국내외 가곡을 들려준다.

- 음악감독/홍지혜
- 연주/Busan Central Symphony Orchestra

### 제13회 부산광역시 여성연합 합창단협의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우회라 010-4556-6703

부산 16개 구군 여성합창단 연합회 소속 회원들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여성연합합창단협의회의 2015년 정기연주회.  
 부산광역시 여성연합합창단협의회는 지난 2002년 창립 이후 매년 1회 연합창단을 구성, 다양한 합창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지휘자 윤정운의 지휘로 국내외 가곡 및 가요, 민요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지휘/윤정운 • 반주/이현주



### 2015 고충진 클래식기타 독주회 숲속의 꿈

일 시 |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 070-8265-0776



독일 라이프찌히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제2회 대전일보사 주최 전국 클래식기타 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한 클래식기타리스트 고충진 독주회.  
 그동안 독일 알고우 심포니 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무대, 제4회 부산국제음악제, 2012 부산기타페스티벌, 제1146회 MBC 목요음악회, EBS 스페이스 공감, KBS TV 문화속으로 등에 출연한 바 있는 고충진은 지난 2009년 유니버설 뮤직에서 음반 '바람이 가르쳐준 노래'를 출판하기도 했다.  
 고충진은 현재 활발한 연주활동과 더불어 동아대학교, 신라대학교, 고신대학교, 부산예중, 부산예고, 브니엘예고 외래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게스트/바이올리니스트 조현미(신라대학교 교수)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클래식 거장들과 함께하는 늦가을의 정취

일 시 | 11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6, 3144~5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초청으로 마련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클래식 거장들과 함께하는 늦가을의 정취'. 미국 뉴저지 웨스트필드 심포니와 뉴욕 그라타치엘로 극장 음악감독이자 뉴욕시티 오페라단, 뉴욕대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데이비드 로가 지휘하고 현존하는 최고의 작곡가이자 마에스트로인 페데레치코로부터 '안네 소피 무터의 뒤를 이을 바이올린의 여제'라고 극찬받은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리스트 교향시 '전주곡'을 비롯해 바버 '바이올린 협주곡', 드보르작 교향곡 제8번 등 늦가을에 어울리는 이름답고도 서정적인 곡들을 들려준다.

### 이수민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1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주)세나 02-552-2505



감수성 짙은 음색과 섬세한 터치로 주목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수민 독주회.  
 한양대학교와 미국 뉴욕대학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아이오와대학교에서 Piano Performance and Pedagogy 박사과정을 밟던 중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연주를 위해 한양대학교에서 서양음악이론 박사과정을 수료하며 전문연주자로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한 이수민은 귀국 후 세종예술아카데미 겨울특강 'Lunch Concert-Tango' 해설 및 연주를 시작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기금조성 '어울림 콘서트', 제30회 다락 콘서트, 세종문화회관 주최 '자선음악회' 시리즈, NYU 트리오 정기연주회,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in 안산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이수민은 미국 뉴욕대학교 강사, 아이오와대학교 Graduate Assistant를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한양대학교와 서울교육대학교에 출강하며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부산대학교 합창단 창단 47주년 기념 제65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28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부산대학교 합창단 010-3773-2683

지난 1968년 창단된 후 올해로 창단 47주년을 맞는 부산대학교 합창단의 65번째 정기연주회.  
 현재 60여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합창단은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재학생들 외에도 대학을 졸업한 동문들이 함께 참여해 더욱 풍성한 무대가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김성복, 김태호가 지휘하고 부산대학교 합창단, 효원남성창단, 3 테너, 동문합창단이 출연, 한국가곡을 비롯해 추억의 팝송 메들리와 이태리 칸소네, 영화OST 모음곡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지휘/김성복, 김태훈



### 박승훈 귀국 트럼펫 독주회

일 시 | 11월 29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박승훈 010-2332-3627



영남대학교 관현악과와 뉴욕 퀸즈컬리지 아로코플랜드 음악대학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있는 트럼펫 박승훈 귀국 독주회.  
 뉴욕 퀸즈오케스트라 단원, 뉴욕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 맥스브라스퀸텟 단원, 더브라스트리오 단원, 뉴욕음악원 강사를 역임한 박승훈은 현재 동의대학교 예술영재원 외래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Jean Hubeau/트럼펫 소나타  
 Richard Peaslee/Nightsongs  
 Eugene Bozza/Caprice 등  
 • 반주/김영실

## 다락전통예술원 정기발표회 II

일 시 | 11월 29일 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이수진 010-2559-8849

지난 2002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 상쇠 이수자, 부산시지정무형문화재 제3호 동래학춤 이수자 등으로 결성된 풍물연희단체 다락전통예술원의 두 번째 정기발표회.

2007년 진해군항제 국악경연대회 사물놀이 최우수상,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풍물부문 금상을 수상한 바 있는 다락전통예술원은 그동안 우리문화알리기 북미 4개도시 순회공연, 보스니아 사라예보 윈터페스티벌, 터키 알로바 국제민속춤 페스티벌, 일본 큐슈 한·일 국제연극제 '춘향전' 등 해외 무대를 통해 우리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 왔다.

### [프로그램]

비나리, 실장구, 판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 동래학춤, 손없는 날(김영준 곡) 등



## 소프라노 조윤정 독창회

일 시 | 11월 30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 070-8265-0776



연세대학교 성악학과와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조윤정 독창회.

부산음교공쿠르 1등을 시작으로 서울음협공쿠르 3등, 한국가곡공쿠르 1등, 수원난파공쿠르 금상 등 다수 공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던 조윤정은 그동안 뉴필하모닉오케스트라 협연, 한울림 음악회 초청무대, 부산그랜드오페라단 오페라 '마술피리', 부산가야오페라단 오페라 '몽유병어인' 주역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전문연주자로서 무대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조윤정은 지난 2011년 귀국 후 현재 부산예고와 창원대학교에 출강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 피아노/김경미
- 바이올린/김성빈
- 게스트/버리튼 시영민

## 민들레현악사중주 가을연주회

일 시 | 11월 30일 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민들레현악사중주 010-4998-5367

바이올리니스트 윤지현, 김애영, 비올리스트 안수정, 첼리스트 박혜진으로 구성된 민들레현악사중주의 무대.

민들레현악사중주는 지난 2012년 창단된 후 학교와 관공서, 박물관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감수성이 풍부한 청소년들에게 클래식 음악의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고 있다.

### [프로그램]

엘가/사랑의 인사  
 모차르트/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

베토벤/미뉴에트

브람스/왈츠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파헬벨/캐논 등 수록

- 단장/김태환

## 토요상설무대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4:00(14일 공연없음)  
**소극장**  
 입장료 | 선착순 무료(7세 이하 어린이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5

11월 7일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설이 있는 매직브라스 금관 앙상블'



섬세하면서도 힘있는 금관악기 특유의 아름다움을 연주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매직브라스(Magic Brass)'의 무대.

### [프로그램]

루터 핸더슨(편곡)/어메이징 그레이스  
 전강석(편곡)/에스터데이

전강석(편곡)/엘로우 서브마린  
 전강석(편곡)/오 슬레미오  
 루터 핸더슨(편곡)/The Saint's Hallelujah  
 Goloman Brass/Soul Bossa 등 수록  
 • 연주/트럼펫 드리트리 로카렌코프, 안세운, 트롬본 정선화, 튜바 송인봉, 호른 최영희, 타악기 장경식

### 11월 21일 앙상블 마즈 연주회

지난 2013년 5명의 젊은 음악가들로 결성된 피아노 5중주팀인 '앙상블 마즈'는 그동안 음악과 휴머니즘의 균형을 추구하는 무대를 고민하며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문화의 공유를 위해 다양한 초청공연과 기획공연을 펼쳐오고 있다. 단체 이름인 '마즈'는 희랍어로 '화합'이라는 뜻.

### [프로그램]

바흐/미뉴엣 제3번  
 비제/아틀르의 여인 중 '미뉴엣'  
 차이코프스키/호두까기인형 모음곡  
 가르멜/영화 '여인의 향기' 중 '간발의 차'  
 브레고비치/탱고 등

### 11월 28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우리나라 창작국악관현악의 선두주자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무대.

### [프로그램]

표정만방지곡 중 '상령산'(집박/채수만·소금/조은경·대금/최재호, 엄익준, 손한별·피리/김용우, 정주아, 박순자·해금/생병원, 이은주, 윤희승외) 거문고 산조[한갑득 류](거문고/이대하·장규/이주현) 가곡 '평릉-북두칠성, 편수대업-모란은'(가곡/정다은·대금/손한별·피리/권미정·해금/최운정·단소/조은경·기아금/김혜진·거문고/박희혜외) 판소리(판소리/정선화·고수/최오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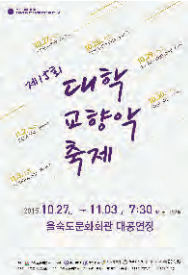
- 해설/전현진

### 제15회 대학교향악축제

일 시 | 10월 27일(화)~11월 3일(화) 오후 7:30  
(주말 공연없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3

...



10월 27일 고신대학교를 시작으로 동의대학교, 경성대학교, 인제대학교, 신라대학교, 동아대학교 등 부산지역 6개 대학 오케스트라가 출연하는 2015 대학교향악축제.

일정  
10월 27일(화) 고신대학교 (지휘/이효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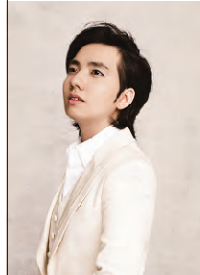
- 10월 28일(수) 동의대학교(지휘/윤상운)
- 10월 29일(목) 경성대학교(지휘/이기균)
- 10월 30일(금) 인제대학교(지휘/이병욱)
- 11월 2일(일) 신라대학교(지휘/오창록)
- 11월 3일(화) 동아대학교(지휘/이동신)

### 2015 임형주 콘서트 'LOVE'

일 시 | 11월 1일 일요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문 의 | (주)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팝페라 테너 임형주 콘서트. 지난 2003년 뉴욕 카네기홀에서 세계 남성성악가 사상 최연소 나이로 데뷔무대를 가졌던 임형주는 같은 해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서 애국가를 선창해 큰 반향을 일으키며 스타덤에 올랐다.

베를린교향악단, 빈교향악단 등 해외 정상급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서울시립교향악단, 코리아안심포니 등 국내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졌던 임형주는 지금까지 발매한 10여 장의 앨범 모두가 첫 주 국내 클래식음반 판매차트 1위를 기록하는 등 팔레타 스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사랑(Love), 오페라(Opera), 버라이어티(Variety), 영원(Eternity)의 첫 글자를 딴 'LOVE'라는 부제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코리안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클래식과 팝, 재즈, 가요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소프라노 엄남이, 임혜정 듀오 콘서트 가을 Duet

일 시 | 11월 2일 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우리아트 920-9545

...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합창단 부수석단원으로 있는 소프라노 엄남이와 고신대학교 성악과와 동아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체코 OPAVA 음악원, 오스트리아 빈음악원, 이태리 A.R.A.M 음악원, 베로나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Dunamis 성악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소프라노 임혜정의 듀오무대.

엄남이는 그동안 독창회를 비롯 금정수요음악회, PBC초청독창회, 그랜드오페라단 갈라콘서트 등에, 임혜정은 독창회 및 체코시립오케스트라, 우크라이나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협연, 오페라 '비밀결혼', '마술피리', '잔니 스키키' 주역, 오페라 갈라 향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피아노/이경미
- 바이올린/홍기정
- 해설/김혜진

### 박정희 교수 제자 발표회 Andante Cantabile

일 시 | 11월 2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



다양한 연주활동과 함께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정희의 제자들이 펼치는 클래식 음악회.

'Andante Cantabile(느리게 노래하듯이)'라는 주제로 대학교 1학년에서부터 대학원생에 이르기까지 총 10명의 예비 피아니스트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이번 무대에서는 고전에서 낭만,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 연주/양희진, 황현재, 강지나, 김혜진, 류지수, 박지현, 배소연, 김나령, 박경리, 김조은

### 최정윤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11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전체 수석으로 입학, 졸업한 후 도미, 뉴 잉글랜드 음악원 석사, 매릴랜드 음대 박사 학위를 취득한 최정윤 피아노 독주회.

부산음악콩쿠르 2위 입상을 비롯해 국내 우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는 최정윤은 그동안 14차례 독주회와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음악인 시리즈 협연 무대 등 독주회, 듀오무대, 실내악 연주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최정윤은 현재 인제대학교, 경성대학교 외래교수, 부산예술중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출강하며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프로그램  
포레/베토벤 작품 26 제1번  
라벨/밤의 가스파르 중 '물의 요정', '교수대', '스카르보'  
쇼팽/발라드 제1번 사단조 작품 23 등

### 테너 양승엽 독창회

일 시 | 11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양승엽 010-7767-4390

...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태리 'L. PEROSI' 국립음악원, 이태리 'A.R.A.M'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U.GIORDANO, Citta di Angro, M.Batisttini, Citta di Nettuno 등 다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테너 양승엽 독창회.

오페라 사랑의 묘약, 라트라비아타, 나비부인, 팔리아치, 카발레리아 루스티까나, 박쥐, 리골레토, 창작오페라 봄봄, 안희재, 잃어버린 별 이정옥 등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한 바 있는 양승엽은 독창회 외에도 이태리 라피오 주립오케스트라, 몰도바 국립라디오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 마산시립교향악단 등 국내외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2002 한일 월드컵 기념 이태리 국회 초청음악회, 이태리 Lazio주 순회공연, 중국 상하이 한중교류음악회,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원 콘서트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양승엽은 현재 부산교육대학교, 동서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다.



##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2~3

### 4일 소프라노 김삼희 독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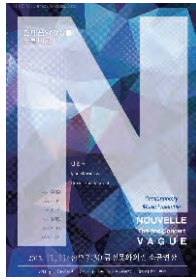
경성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탈리아 파르마 A.Boito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파르마 Orfeo 아카데미 오페라최고연주자과정, 로마 아카데미 합창지휘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독일 국립매니저먼트 쾰른, 라이프치히 소속가수, 수영로교회 솔리스트 및 올리브예술단

지휘자, 위드양상블 멤버, (사)뮤지컬 창작단 '하늘에' 객원가수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김삼희 독창회.

### 프로그램

- 드보르작/연가곡 '집시의 노래' 작품 55
- 드보르작/오페라 '루살카' 중 '달의 노래'
- 김동진/신아리랑, 진달래꽃
- 구노/오페라 '파우스트' 중 '보석의 아리아' 등 수곡
- 게스트/메조소프라노 김지영
- 피아노/윤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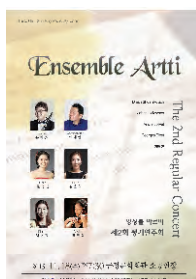
### 11일 현대음악양상블 누벨바그 제2회 정기연주회



클래식음악의 보다 진보적인 음향과 악곡전개의 새로운 어법 탐구를 위해 다양한 창작곡을 선보이는 현대음악양상블 누벨바그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 이번 무대에서는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목원대학교 교수로 있는 현대음악 작곡가 김민표와 스트라빈스키, 쇼스타코비치 곡을 들려준다.
- 연주/유지훈(리더, 클라리넷), 김지원(바이올린), 손은혜(바이올린), 김가민(비올라), 현리사(첼로), 진승민(피아노)

### 18일 Ensemble Artti 제2회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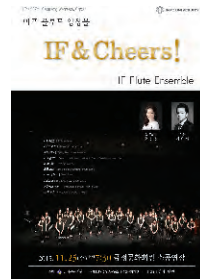
Ensemble Artti이 들려주는 현대음악의 밤.

- 플루티스트 김윤희, 유지훈, 첼리스트 문숙연, 피아니스트 박은정, 바이올리니스트 안현정의 연주로 작곡가 이태현의 창작곡을 비롯해 쇼스타코비치, 할브르센, 졸리베, 비제의 곡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콘체르티노 기단조 작품 94  
 할브르센/파사칼리아  
 졸리베/플루트와 클라리넷을 위한 소나티네 등

### 25일 IF 플루트 앙상블 'IF & Cheers'



지난 2012년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및 졸업생들로,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플루티스트들로 결성된 IF 플루트 앙상블의 무대.

'Inje Flute'의 첫 글자로 만든 IF 플루트 앙상블은 '만약 단 한사람의 관객이라도

감동시킬 수 있다면 끝까지 음악을 사랑하고 탐구하며 열정과 성의를 다해 연주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 프로그램

- R.Cavally/Flute Family sketch
- 비발디/'사계' 중 '봄'
- J.Jordan/Little red monkey
- Zempieni/트리오 등 수곡
- 음악감독/오신정
- 지휘/이요섭

### 제46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 대륙의 자존심 양 쉘페이

일 시 | 11월 6일 금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최고의 기타리스트 양 쉘페이 이 초청무대로 마련되는 제 46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중국 내 최고의 기타리스트로, 중국인 최초 영국왕립음악원에 입학, 2012년 영국왕립음악원 펠로우십 상을 수여받았던 양 쉘페이는 14세의 나이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가진 데뷔연주회에 당시 작곡가 로드리고가 참석해 화제가 되었다. 영화음악 작곡가로 유명한 존 윌리엄스의 그의 연주에 감명 받아 양쉘페이가 재학 중이던 베이징 중앙음악원에 그의 악기 2대를 기부하기도 했다. 국제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양 쉘페이는 데뷔 음반으로 발매된 'Romance de Amor'가 홍콩에서 골드 디스크상을 수상했으며, 두번째 음반인 '40 Degrees North'는 그라모폰 잡지에 에디터 초이스로 선정되기도 했다.

##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신명무대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8천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전통예술에 대한 감수성 함양 및 국악 대중화를 목적으로 매주 토요일 마련해온 국립부산국악원의 대표 상설공연 '토요신명무대' 11월 무대

**7일 흐르는 듯 멈추고, 멈출 듯 흐른다-민속춤**  
 승무와 나비춤, 진주교방굿거리와 동래한량무, 영남춤, 산조춤, 태평무, 밀양백중놀이

**14일 궁궐의 멋과 여유를 만나다-궁중문화**  
 수제전, 춘앵전과 무산향, 취타, 궁중검무, 상량산, 포구락

**21일 신명의 울림-타악**  
 무고, 삼도설장구, 설장구춤, 삼도풍물가락, 소고춤, 꽃나부풍장

**28일 함께 나누는 우리 소리 이야기-성악**  
 잡가, 판소리, 가야금병창, 경·서도민요, 남도·제주민요, 동부민요

###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 클랑 트리오 '가을에 만나는 춤의 선율'

일 시 | 11월 7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그동안 수많은 실력있는 연주자들과 함께 부산의 살롱문화를 이끌어온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이번 무대에서는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KA, 데트몰트 국립음대 실내악 Master 과정을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박혜련과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석사 및 실내악 Master 과정을 졸업한 첼리스트 이현주,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 드레스덴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이호정으로 결성된 클랑 트리오의 무대가 펼쳐진다.



### 클라비어 하우스 콘서트

일 시 | 11월 7일 토요일 오후 5:00

클라비어음악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010-3069-9777

...



부산예술고등학교 1학년인 박상현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마련하는 '클라비어 하우스 콘서트'.

차세대 음악가를 꿈꾸며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 음악도들의 작은 무대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6회를 맞은 이번 무대에서는 독주 및 앙상블, 성악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가 펼쳐진다.

- 사회, 해설/박상현
- 바이올린/김현우, 김윤지
- 성악/류가은, 김성산
- 피아노/서수민
- 앙상블/피아노 박상현, 바이올린 김윤지, 첼로 박시은

### 수아트홀 기획 제4회 한국가곡전 [가곡과 동요 편]

일 시 | 11월 7일 토요일 오후 7:00

수아트홀 해운대점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수아트홀 744-1415

...



2012년 5월 개관 후 연주자와 청중이 가까워서 함께 호흡하는 무대를 가져온 해운대 수아트홀의 기획 무대.

소프라노 김성숙, 이명규, 테너 박정민, 바리톤 이연기, 임민철과 어린이 김권민, 이도은 등이 출연, 우리에게 친숙한 가곡 및 동

요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나뭇잎배(윤용하 곡), 사랑(홍난파 곡), 달밤(나운영 곡), 아리랑 판타지(이호준 곡), 독도는 우리의 친구(이호준 곡), 똥보새(정재원 곡), 그리운 마음(김동환 곡), 간다간다 하더니(김규환 곡) 등

- 연주/수양앙상블(첼로 이지수, 피아노 고영주, 바이올린 금성빈)

### 아르고 윈드오케스트라 제9회 정기연주회 인생의 여정

일 시 | 11월 8일 일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아르고 윈드오케스트라

010-4576-4844

...



클래식에서부터 경음악까지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연주로 관객에게 다가가고 있는 아르고 윈드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아르고'는 그리스 신화 속 영웅 이아손이 최고의 용사 50명과 함께 황금 양털을 찾으러 갈 때 타고간 배의 이름으로, 관악의 르네상스

를 이끌겠다는 단원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지난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뉴욕 세계무역센터 테러사건에서 희생당한 소방관과 경찰관, 시민들을 기억하기 위해 작곡된 'Portrait of Freedom'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땀흘려 고생하는 소방관들에게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 지휘/이상용(상임지휘자)

### 창단 10주년 기념 부산우드윈드앙상블 제10회 정기연주회 또 다른 시작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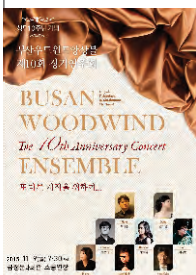
일 시 | 11월 9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우드윈드앙상블 010-5660-3919

...



지난 2005년 창단된 후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우드윈드앙상블 창단 10주년 기념연주회 '또 다른 시작을 위하여...'.

플루티스트 최낙주, 오보이스트 김미영, 클라리네티스트 원준연, 바수니스트 양희경, 호르니스트 최창현, 피아니스트 김성희

로 구성된 부산우드윈드앙상블은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특별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목관앙상블의 매력을 전하고 있다.

**[프로그램]**

- 루이스 슈포어/7중주 작품 147
- 슈베르트/아베마리아, 세레나데
- 하차투리안/갈의 춤
- 구노/Petite Symphonie

###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바이올리니스트 조윤범 '전람회의 그림'

일 시 | 11월 10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



현악4중주단 콰르텟엑스 리더이자 편곡자에서부터 칼럼기고와 강좌, 웹디자이너, 출판 등에 이르기까지 민기 어려운 정도의 엄청난 에너지와 실력을 소유한 바이올리니스트 조윤범과 함께 하는 영화의 전당 마티네 콘서트 11월 무대.

조윤범의 해설과 콰르텟엑스의 연주로 바로크 미술과 음악을 비교하고 로코코 시대로의 변화와 낭만주의, 인상주의 예술의 절정들, 그리고 비엔나로 대표되는 세기말 미술과 음악의 세계로 안내한다.

- 연주/콰르텟엑스(제1바이올린 조윤범, 제2바이올린 양승빈, 비올라 김희준, 첼로 임이랑)

### 김혜진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 11월 10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김혜진 010-4568-3370

...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창원시립교향악단 단원, 부산시립포니에타 단원으로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김혜진 독주회.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한 김혜진은 제22회 부산신인음악회 최우수연주자로 선정된

바 있다.

**[프로그램]**

- 모차르트/바이올린 소나타 마단조 KV 304
- 드뷔시/바이올린 소나타 사단조
- 라벨/차간느
- 리처드 슈트라우스/바이올린 소나타 내림마장조
- 작품 18

- 피아노/박은식(전남대학교 교수)

**전유성의 폭스 클래식 콘서트  
암모 암모**

일 시 | 11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기존의 딱딱하고 근엄한 클래식 공연의 틀을 벗어나 누구나 신나게 웃고 떠들며 관람할 수 있는 신개념 음악회 '암모 암모'.

개그맨 전유성이 연출을 맡아 대중적인 클래식음악회로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암모 암모'는 실력과 성악가들의 수준높은 오페라 공연에 성악가들의 코믹한 표정과 몸짓, 관객과 함께하는 맨스타입 등 엉뚱하면서도 기상천외한 설정을 더해 클래식의 색다른 재미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한우리 오페라단이 출연, 오페라 아리아와 가곡, 동요, 가요메들리, 영화주제곡 등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출연/테너 박민, 이영환, 박명원, 바리톤 최재민, 홍준호, 김정훈, 소프라노 이한나의

**제47회 을숙도명품콘서트 '순수'**

일 시 | 11월 12일 목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국내외 유명 연주자와 지역의 실력파 연주자를 초청, 서부산권 시민들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주는 을숙도문화회관 명품 콘서트 11월 무대.

을숙도문화회관 상주단체로 있는 T.I.F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인제대학교 교수로 있는 플루티스트 오신정의 협연으로 바흐 '플루트 협주곡 라단조', 드보르작 교향곡 제8번을 들려준다.

오신정은 서울대학교와 미국 맨하탄음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KBS교향악단 부수석을 역임한 바 있다.

- 지휘/이효상
- 작곡/백승태
- 협연/플루티스트 오신정
- 연주/T.I.F 심포니오케스트라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유지훈 & 이효주 클라리넷 듀오  
리사이틀**

일 시 | 11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부산대학교와 프랑스 무동음악원 전문연주자과정, 베르사이유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유지훈과 경성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시립청소년 교향악단 단원을 역임한 이효주 등 두명의 클라리넷리스트가 'CCC(Classic and Contemporary of Clarinet)'라는 테마로 듀오무대를 펼친다.

**프로그램**  
프란츠 크로머/두대의 클라리넷을 위한 협주곡  
요르그 비드만/클라리넷 솔로를 위한 환타지  
멘델스존/콘체르트슈투크 제2번 작품 114 등



Program Guide >>>

**2015 풍류전통예술원 정기공연  
풍무악(風舞樂)**

일 시 | 11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풍류전통예술원 010-2781-3888

지난 1999년 창단된 후 동해안별신굿의 무속음악과 경상도 지역의 토속적인 풍물의 원형과 맛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풍류전통예술원 2015년 정기공연.

1부에서는 동해안별신굿의 독특한 타법을 이용한 팽과리 연주곡 '자브라갱'을 시작으로 앉은반 시물 놀이와 우도설장구 중 가락이 가장 화려한 김병섭류 우도선반설장구가, 2부에서는 관객들의 복을 빌어주는 비나리와 신명넘치는 판굿,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8호 진도북춤(박병천류)이 펼쳐진다.

- 출연/박종환, 정동훈, 이정현, 권운우, 최선희, 전상오, 이정환, 한석연,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정두환 with 토크 콘서트  
광복 70주년 '자원봉사!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일 시 | 11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정두환 010-3591-3342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민 정두환과 정두환의 음악 친구들 오케스트라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무대.

합창단, 오케스트라, 오페라 지휘, 평론, 작곡 등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지속

적인 음악 작업을 펼쳐온 정두환은 시민들과 함께 음악 만들기 작업으로 2000년 3월부터 매주 화요일 열리는 화요음악강좌를 16년째 진행해오고 있다. 정두환은 현재 정두환의 음악친구들 오케스트라 지휘자, 부산블러티어윈드앙상블 지휘자, 한국음악평론가협회 이사, 부산MBC부설(사)문화도시네트워킹 지역문화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특별출연/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악대부 (지휘/최준호)

**제7회 황남용 클라리넷 독주회**

일 시 | 11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 황남용 010-8007-8087



영남대학교와 독일 WuppertalMusik Hochschule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클라리넷과이어 악장, 부산현대음악앙상블, 플레이어즈 벅(Players Becs), A-ri 앙상블 단원, 예술법인 T.I.F 이사로 활동중인 클라리넷리스트 황남용 독주회.

독일 유학시절 음악적 역량을 넓히기 위해 Karl Leister, Nobert Kaiser 등 세계적인 연주자들의 마스터 클래스에도 참가하기도 했던 황남용은 2004년 귀국 후 6차례 독주회를 비롯 실내악 무대 등 다양한 무대에서 서고 있다. 황남용은 현재 동의대학교, 부산예중, 부산예고, 거제청소년오케스트라에 출강하며 두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 명륜초등학교 오케스트라를 지도하는 등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게스트/비르투오조 앙상블(비야올린 조무중, 오근영, 비올라 김민경, 첼로 정학선)

### 기드온콰이어 제16회 정기연주회 순례의 길~30년을 향하여

일 시 |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6:30

영화의전당 하늘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기드온콰이어 010-2545-4419

...  
지난 1994년 창단된 교회음악 전문연주단체 기드온콰이어의 16번째 정기연주회, 60여명의 남성단원들로 구성된 기드온콰이어는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4차례 미주지역 순회연주, 국내 외 연 1,000여회 초청연주회 등을 통해 '영혼을 깨우는 성령의 소리'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 2015 막심 므라비차 밴드 내한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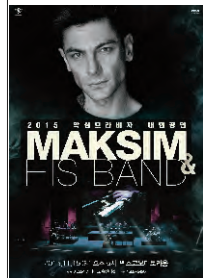
일 시 | 11월 15일 일요일 오후 5:00

벅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R석 12만 1천원, S석 9만 9천원

A석 7만 7천원

문의 | (주)WSM 1566-5490



멋진 무대 퍼포먼스와 뛰어난 외모, 스피디한 연주로 일렉트로닉 피아노의 제왕으로 불리는 피아니스트 막심 므라비차 내한공연. 일렉트릭과 어쿠스틱, 피아노를 번갈아 사용하며 클래식음악을 록과 테크노 스타일로 재해석, 대표적인 크로스오버 피아니스트로

주목받고 있는 막심 므라비차는 지난 내한공연에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전석 매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매진의 기록을 세우며 뜨거운 무대를 선사했다. 장르와 음악적 경계를 넘어 파격적인 연주를 선보여 '신이 내린 손가락'이란 찬사를 받고 있는 이번 막심 므라비차의 공연에서는 7인조 폴밴드와 함께 현란한 테크닉과 비트가 강한 리듬, 테크노 음악적인 분위기로 환상적이고 매혹적인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 라메르 오케스트라 신나는 예술여행 행복 드림 콘서트

일 시 | 11월 16일 월요일 오후 3:30 그린닥터스

온중합병원 강당, 26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 수영로교회 교육관, 12월 1일 화요일

오후 5:00 새빛보육원 강당, 9일 수요일

오후 3:30 부산광역시의료원 1층 로비

입장료 | 무료

문의 | 라메르오케스트라 627-5665,

010-5566-5332



클래식, 크로스오버, 팝 등 다양한 음악회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해온 라메르 오케스트라가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신나는 예술여행 '행복 드림 콘서트'.

라메르오케스트라는 지난 1998년 창단 후 그동안 청소년 음악교육 및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음악회, 초청공연, 기획공연, 정기연주회 등으로 시민의 정서적 함양을 위해 노력해왔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병원, 보육원 등 우리 이웃을 직접 찾아가 음악사랑을 펼친다.

### 최민경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1월 16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최민경 010-9496-2687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트로센엔 국립음대 피아노 석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음악원 전문연주자과정, 최고연주자과정,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최고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폭넓은 연주활동을 펼쳐온 피아니스트 최민경 독주회.

이태리 '로렌조 페로지' 국제음악콩쿠르 실내악부문 1위, 'Un ricetto in Musica' 국제음악콩쿠르 Giovanni Albertino 실내악부문 1위없는 2위, 'Nuovi Orizzonti 2006' 국제콩쿠르 실내악부문 3위 등 유명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는 최민경은 2007년 귀국독주회를 시작으로 솔리스트로서 뿐만 아니라 실내악, 가곡 및 오페라 연주자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최민경은 현재 부산대학교, 경성대학교 외래교수, 부산예술고등학교 강사로 있으며 은향교회 호산나 찬양대 반주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 심어라 첼로 리사이틀 러시아 음악여행

일 시 | 11월 16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현재 소블리스(Sobliss)트리오, 라푸즈양상블, 무지카비바 단원 및 부산산포니에타 부수석, BCO 부수석, 코리아솔로이츠 부수석 및 다수 오케스트라에서 객원수석 연주자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첼리스트 심어라 독주회.

러시아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국립음악원에서 학, 석사 과정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음악적 열의와 연주자로서의 탄탄한 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심어라는 2009년 귀국독주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으며, 현재 브니엘예고에 출강하며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주제에 의한 12변주곡 스타빈스키/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이탈리아 모음곡 차이코프스키 / 로코코 변주곡 작품 33

### 윤지영 귀국 피아노독주회

일 시 | 11월 17일 화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740-5833



탄탄한 아카데미즘의 바탕 위에 호소력 짙은 음악성을 겸비한 피아니스트 윤지영 귀국 독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한 후 도미, 뉴욕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시애틀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윤지영은 뉴욕대학교 재학 당시 '브래드쇼&부노노 국제피아노콩쿠르' 1위 수상으로 뉴욕 카네기홀에서, '아메리칸 프로티지 국제피아노콩쿠르' 2위 입상으로 역시 카네기홀에서 2차례 연주회를 가졌으며, 시애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주최한 '부셀 콘체르토 컴퍼티션'에서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멘델스존/환타지 작품 28 올림바단조 프랑크/전주곡, 코랄과 푸가 작품 21  
포레/즉흥곡 작품 84 제5번  
쇼팽/환상 폴로네이즈 작품 61

## 영도구 장애인 복지관과 함께하는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16일 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회관 봉래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 920-9545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음악가들 중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3~40대 젊은 연주자들이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포항시립교향악단 단원들로 결성된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

지난 2008년 9월 노동부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탄생된 부산시티오케스트라에서 출발해 2011년 지금의 오케스트라로 단체이름을 바꾸고 재창단한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음악회를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우리 이웃에게 음악 사랑을 전해오고 있다.

- 지휘/박성은(상임지휘자)
- 협연/소프라노 이영화, 테너 조윤희

## 수험생을 위한 청소년 음악회

일 시 | 11월 18일 수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  
입장료 | 무료(선착순 공연신청)  
문 의 |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3

관객 우선의 참신한 기획과 다양한 연주로 클래식 팬들에게 다가가는 정통 오케스트라로 호평받고 있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로 마련되는 수험생을 위한 청소년 음악회.

지휘자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부산음악인 시리즈, 오페라공연, 조수미 콘서트, 호세카레라스 독창회, 부산바다축제, 한-일 빅콘서트, KNN OST 콘서트 그리고 기업 메세나음악회 등 수많은 연주를 통해 대표적인 민간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예술감독/오충근
- 협연/양경아(바이올린)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제2회 을숙도 대학가곡제 靑春歌曲 오케스트라에 꿈을 담다

일 시 | 11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05



부산지역 7개 음악대학 성악전공자들에게 무대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향토색 깊은 창작가곡을 발표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제2회 을숙도 대학가곡제.

지휘자 이효상이 이끄는 T.I.F 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로 경성대학교 박찬성, 전

수경, 고신대학교 Sunia Soko Loga, 장새롬, 동아대학교 조지원, 양진혁, 동의대학교 최신, 광동민, 부산대학교 김지영, 박태준, 신라대학교 강희진, 조준제, 인제대학교 임찬우, 서보경 등 14명의 성악전공자들이 출연, 창작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지휘/이효상
- 편곡/백성태
- 연주/T.I.F 심포니오케스트라

## 배성아 첼로 독주회

일 시 |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예술기획원 010-9025-2012



현재 창원시립교향악단, 비르투오조양상블, 부산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발한 활동중인 첼리스트 배성아 독주회.

경희대학교 기악과 재학 중 서울시청소년교향악단에 입단, 풍부한 오케스트라 경험을 쌓은 배성아는 졸업 후 창원시립교향악단에 입단, 음악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으로 오케스트라 활동을 병행하며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음악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배성아는 동의대학교 영재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 프로그램

- 가스파르 카사도/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레퀴브로스
- 베토벤/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5번 라장조
- 라흐마니노프/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작품 19
- 피아노/성민주

## 신문범 고법연주회 Part.5 '수궁가'

일 시 | 11월 22일 일요일 오후 4:00  
국립부산국악원 예시당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사)일통고법보존회 부산지회 사무팀장  
최정욱 010-9231-7066



부산이 낳은 판소리 고법의 명고 신문범의 고법(鼓法) 연주회 Part.5 '수궁가'.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법 전수자,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이수자로 있는 신문범은 (사)일통고법보존회 부산지회 회장, 국악전문단체 '타로' 공동대표로 부산 전통국악

의 타악 분야를 계승 발전시켜왔으며, 현재 부산에 솔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로 재직하며 많은 국악 인재들을 발굴하는데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 단원 김미진의 장편개제 '수궁가'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의 미산제 '수궁가'를 신문범의 명고로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 부산 챔버스퀘어와 함께하는 클래식 산책 제1회 프롬나드 콘서트 '만추'

일 시 |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상공회의소 부산 챔버스퀘어를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상공회의소 총무관리팀  
990-7042~7



2014년 10월 첫 공연을 시작으로 매회 신선한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롬나드 콘서트 11월 무대.

'만추'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첼리스트 이예성의 협연으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담은 아름다운 곡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 슈베르트/세레나데
- 차이코프스키/감성적 왈츠 작품 51
- 드보르작/슬라브무곡 작품 72 제2번 등 수곡



### 2015 강태홍의 소리

일 시 |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무료

문 의 | 강태홍류가야금산조보존회  
010-9149-3433

부산시무형문화재 제 8호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를 전승, 보존하고 있는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존회의 2015년 정기발표회.

서남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민속악회 수리 대표로 있는 소리꾼 남상일의 사회로 중요무형문화재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유자인 신명숙과 이수자, 전수자들이 연주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독주, 합주를 비롯해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를 새롭게 변용한 창작곡과 국악창작곡, 판소리, 민요 등을 들려준다.



청년음악가시리즈 15, 16' 청년이 살아야 음악도 산다'

### 피아니스트 장유진, 김은정

일 시 |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소민아트센터 아트홀

입장료 |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 의 | 음악풍경 987-5005

역량있는 신예 음악가들을 발굴, 데뷔무대를 제공함으로써 차세대 음악가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고 있는 청년음악가 시리즈 11월 무대. 부산교육대학교 콩쿠르 1등상을 수상하고 부산시 교육청 예술영재교육원, 아시아 인터내셔널 썸머피아노아카데미를 수료한 부산대학교 2학년 장유진,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악원 학사 및 석사, 미국 신시내티 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 및 동대학원 연주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예술중고등학교 강사로 있는 김은정의 무대로 마련된다.

• 진행/고민지



(사)일통고법보존회 부산지회 정기연주회

### 소리 판

일 시 | 11월 29일 일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최정옥 010-9231-7066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법 예능보유자 이동 김청만 선생의 명맥을 이어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일통고법보존회 부산지회의 정기무대. 사람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전통국악과 판소리 고법을 대중적인 무대로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무대로, (사)일통고법보존회 부산지회 회원들이 함께하는 소리북 합주 '고성(鼓聲)'을 시작으로 부산대학교 박환영 교수와 최고 교수 김청만 선생이 만드는 '박종기제 대금산조', 명창의 소리와 고수의 북 가락이 어우러지는 '판소리 & 소리북'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



### 제2회 송민서 타악기 독주회

일 시 | 11월 29일 일요일 오후 5: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송기태 010-3580-3318

부산음악교육협회 콩쿠르 1위, 부산예술중고등학교 콩쿠르에서 각각 1위, 2위에 입상하고 부산대학교 실기우수 장학생으로 입학해 현재 2학년에 재학중인 송민서의 두 번째 타악기 독주회.

8세부터 음악을 시작한 송민서는 중학교 시절 부산광역시 교육청 산하 예술영재 교육원에 입학하여 타악기과정 2년을 거치면서 모스크바 국립 베토벤 음악학교 캠프에 참가하고, 이후 교육청 교문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타고난 음악적 재능을 꽃피우기 위해 노력해왔다. 송민서는 특히 2013년 고등학생 최초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독주회를 개최, 떠오르는 신예 음악가로 주목받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정경진의 해설로, 평소 자주 접하지 못하는 타악기만의 특별한 매력을 풀어낸다.



### 연극 '셜록홈즈'

#### 연극 '셜록홈즈'

일 시 | 9월 17일(목)-2016년 1월 3일(일) 평일 오후 5:00, 8:00, 주말·공휴일 오후 5:00, 8: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추리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이 창조한 셜록 홈즈를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연극 '셜록홈즈'. 외딴 성에서 벌어진 재산가의 자살 사건. 하지만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의문의 편지가 홈즈에게 배달되고 추리는 시작된다. 밀실과 같은 성에서 벌어진 사건은 자살일까, 타살일까? 수사를 거듭할수록 셜록홈즈는 인간과 진실사이의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연극 '셜록홈즈'는 스피디한 스토리 전개와 현대적인 코믹요소, 효과적인 무대장치를 통해 스릴과 반전이 있는 추리극의 재미를 전해준다

### 뮤지컬 '복순이할배-리턴즈'

일 시 | 10월 2일(금)-11월 29일(일) 평일 오후 8:00, 토·공휴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광안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균일 1만 2천원)

문 의 | ㈜플래이더부산 1600-0316



모든 공연을 직접 만들어 '메이드 인 부산'을 표방하는 아트레볼루션의 창작뮤지컬 '복순이할배-리턴즈'. 주인공 태수는 친구처럼 지내는 옛사랑 지혜의 마음을 돌리려 애쓰지만 지혜에게 사랑을 모른다는 이유로 거절당한다. 복지학과에 재학중이던 태수는 어느날 괴짜 독거노인 할아버지 집에 실수를 나가게 되고 복순이 할아버지로부터 사랑의 의미에 대해 배우게 되지만 답답하고 눈치 없는 탓에 혼나기 일쑤다. 과연 태수는 제대로 사랑의 의미를 배울 수 있을까?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로 제작된 '복순이할배-리턴즈'는 탄탄한 연출력과 연기력, 귀까지 즐겁게 해주는 주옥같은 OST가 보는 재미를 더해준다.

## 국민연극 '라이어 그 후 20년'

일 시 | 10월 2일(금)~11월 2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 균일 3만원(인터파크 예매시 1+1 지원사업 할인 2만 1천원에 2매, 10월 1일까지 예매시 조기예매할인 2만원, 중·고·대학생 할인 1만 5천원)

문의 | ㈜디오르골씨어터컴퍼니 664-7880



20년 동안 두 가정에서 버텨온 남편과 아버지로 살아온 한 남자의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을 다룬 요절복통 코미디 연극 '라이어 그 후 20년'.

영국의 극작가 겸 연출가 레이 쿠니의 작품으로, 그동안 대학로 최고 흥행 연극으로 자리매김한 '라이어 1탄'으로부터 이어지는 사건의 실마리에 더욱 탄탄하게 다져진 이야기로 극의 재미를 더하는 '라이어 그 후 20년'은 현실과 같이 거듭되는 거짓말과 그 속에서 빛나는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 그리고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유쾌한 웃음을 관객들에게 전해준다.

## 로맨틱코미디 '플랫맨'

일 시 | 10월 15일(목)~12월 31일(목)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용천지랄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문의 | 용천지랄소극장 759-7731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과 삶의 무게에 눌려 결박증 및 강박증을 조금씩은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 삼포세대들을 위한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 첫 번째 무대 로맨틱 코미디 '플랫맨'.

단 1초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철두철미한 시간관념, 자료 채듯한 인생살이가 삶의 목표인 주인공 장백 앞에 자유분방하고 즉흥적인 친구 지훈이 나타나 하루만에 장백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다. '플랫맨'은 1분 1초까지 알람에 맞춰 살아온 남자가 계획에 없던 절친 친구의 등장으로 생애 최초 무게 획적인 라이프에 도전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사고와 특이한 개성이 느껴지는 네 남녀의 알콩달콩 사랑 이야기가 유쾌한 웃음을 전해준다.

## 연극 '개 짚는 날'

일 시 | 10월 22일(목)~11월 7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한결아트홀**

입장료 | 일반 3만원, 대학생 2만 5천원

중고생 2만원(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선정작)

문의 | 극단 누리에 621-3573



2011년 제4회 전국창작회 공모 은상 수상작이자 2012년 제30회 부산연극제 연출상, 신인연기상을 수상한 연극 '개 짚는 날'. 정년퇴임 후 개농장을 운영하는 무뚝뚝한 아빠와 오직 자식격정 뿐인 엄마, 작가를 꿈꾸는 자기밖에 모르는 딸, 백수로 살아가는 철부지 이훈남 아들 등 한 가족의 소소한 일상과 갈등, 화해를 통해 가족간의 사랑을 따뜻하게 그려낸다.

- 작/이경진
- 연출/강성우
- 출연/세진만, 최성희, 김재윤, 박빈, 양경문, 이지혜, 황유나, 이태성, 우지현

## 극단 아센 제43회 정기공연 연극 '살고지고'

일 시 | 11월 5일(목)~22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하늘바람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의 | 극단 아센 504-2544

우리지역 희곡작가들의 우수한 창작작품을 관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소극장 연극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극단 아센의 2015 부산소극장연극 페스티벌 레퍼토리전 참가작 연극 '살고지고'.

부산에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신진작가 류수현의 2014년 목표문학상 희곡 당선작인 '살고지고'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맞이하는 어느 세상날을 배경으로, 서로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며 서로 아웅다웅하지만 살아온 세월 속에서 이제는 정이 들어버린 고부지간의 정을 담담히 그려낸다.

- 작/류수현
- 연출/호민
- 출연/구민주, 권민중



## 룸넘버 13

일 시 | 11월 5일(목)~2016년 2월 14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라이어'의 작가 레이 쿠니의 작품으로, 로렌스 올리비에 베스트 코미디상을 수상한 코미디극.

국회 회기 중에 눈이 맞은 여당 국회의원 리처드와 야당총재 여비서 제인이 호텔방에서 막 일을 치러려는 순간 난데없이 시체가 발견되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 이 일을 국회의원 비서인 조지에게 떠넘기려 한다. 하지만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하게 꼬여만 가고 리처드와 제인은 과연 이 사태를 벗어날 수 있을까. 레이 쿠니 특유의 기막힌 반전과 반전에 정치풍자성을 가미한 '룸넘버 13'은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총재 비서의 스캔들을 소재로, 그 과정 속에서 펼쳐지는 황당한 상황과 이를 모면하기 위한 인간들의 모습이 큰 웃음을 선사한다.

## 부두연극단 여배우열전 시리즈 3 변지연의 그린벤치

일 시 | 11월 10일(화)~19일(목)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액터스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 대학생 2만원

중고생 1만 5천원

문의 | 부두연극단 611-6616



올해로 창단 30주년을 맞는 부두연극단이 100회 기념공연 일환으로 마련하는 여배우열전 세 번째 작품 '변지연의 그린벤치'.

'물고기의 축제'로 기사다 구니오 희곡상을 수상하고 '가족시네마'로 아쿠타가와 소실상을 수상한 재일교포 작가 유미리의 대표작인 '그린벤치'는 작가 유미리의 자전적 삶이 녹아든 작품으로, 불행에 익숙한 한 가족의 무섭고도 슬픈 자화상이 테니스장이 있는 그린벤치 앞에서 펼쳐진다.

- 작/유미리
- 연출/이상규
- 출연/변지연, 구미석, 서희정, 백용재

### 어린이 율동놀이 뮤지컬 호비의 놀이극장 - 수수께끼 놀이터

일 시 | 11월 14일-15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선정작)  
문의 | (주)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에듀챌린지의 유아교육전문 브랜드인 '아이챌린지'의 인기 캐릭터 호비와 친구들이 등장하는 어린이 율동놀이 뮤지컬 '호비의 놀이극장-수수께끼 놀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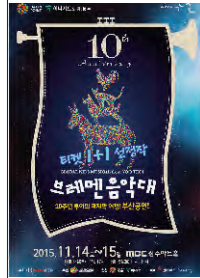
지난 2010년부터 시즌제로 어린이 관객과 만나온 '호비의 놀이극장'은 어린이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뮤지컬로, 재미와 더불어 바른 인성과 생활 습관을 배울 수 있는 교육적인 작품이다.

호비와 친구들이 살고 있는 챌린지마을 놀이터에 세균대마왕이 나타난다. 호비와 친구들은 세균대마왕으로부터 놀이터를 지키기 위해 숨겨져 있는 수수께끼를 찾아내 풀기 시작하고 손 씻기, 밥 잘 먹기, 이 잘 닦기, 나무 사랑하기 등 수수께끼 정답을 풀어내며 노래와 율동으로 실천할 것을 약속한다.

연에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뮤지컬로, 재미와 더불어 바른 인성과 생활 습관을 배울 수 있는 교육적인 작품이다. 호비와 친구들이 살고 있는 챌린지마을 놀이터에 세균대마왕이 나타난다. 호비와 친구들은 세균대마왕으로부터 놀이터를 지키기 위해 숨겨져 있는 수수께끼를 찾아내 풀기 시작하고 손 씻기, 밥 잘 먹기, 이 잘 닦기, 나무 사랑하기 등 수수께끼 정답을 풀어내며 노래와 율동으로 실천할 것을 약속한다.

### 어린이 뮤지컬 '브레멘 음악대'

일 시 | 11월 14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5:00,  
15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삼주아트홀  
입장료 | R석 4만원, S석 3만원(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선정작)  
문의 | (주)문화공 1688-8998



그림형제의 동명의 동화를 원작으로, 지난 2006년 정동극장 초연이후 국내 어린이뮤지컬의 대표작으로 자리잡아온 '브레멘 음악대' 10주년 전국 투어 마지막 무대.

당나귀, 개, 고양이, 암탉 등 어린이들과 친숙한 네 마리의 동물들이 꿈을 찾아

브레멘으로 향하는 모험담을 그린 이번 작품은 지난해 제3회 서울뮤지컬페스티벌 예그린어워드에서 아시테지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 프로듀서/유열
- 작/김승주
- 작곡/지상철
- 출연/홍사빈, 배기범, 신현정, 이재영, 전병주, 배준상, 하영주, 이원민, 유진아, 이묘리, 채희원, 정민재
- 연출/박진선
- 안무/김옥

### 뮤지컬 '울고있는 저 여자'

일 시 | 11월 17일(화)-22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한결아트홀  
입장료 | 일반 3만원, 대학생 2만 5천원  
중고생 2만원, 초등생 1만 5천원  
문의 | 한결아트홀 1588-9155



올해 5월 김하영 대표 체제로 바뀌며 '논리를 이겨낸 진실된 공연, 상상력으로 서의 배우의 존재양식,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우주적 인간으로서의 배우'를 지향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 극단 가미골의 무대.

2004년 대산대학문학상 희곡부문 당선작으로,

2005년 연출가 남미정 연출로 초연된 후 이재경 각색, 이윤주 연출의 뮤지컬로 재연되어 꾸준히 무대에 올려진 '울고있는 저 여자'는 울고있는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의 낯선 시선에서 출발, 우는 여자에 대한 연민에서 어느 순간 여자가 아닌 울고있는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 작/김현영
- 연출/이윤주
- 협력연출/이재경
- 라이브 기타연주, 음악감독/윤현중
- 출연/배보람, 조승희, 박인화, 김영학

### 버블J의 언빌리버블쇼

일 시 | 11월 22일 일요일 오후 2: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5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매직 버블쇼. 비눗방울, 불, 지팡이를 이용한 매직 버블쇼와 별문아트, 관객과 함께 풍선 만들기, 대형 비눗방울쇼 등 버블J의 손에서 펼쳐지는 형형색색의 매직버블, 풍선 아트를 통해 어린이들을 신

기한 마법의 세계로 안내한다.

### 뮤지컬 '레베카'

일 시 | 12월 2일-4일 수-금요일 오후 7:30, 5일  
토요일 오후 3:00, 7:00, 6일 일요일 오후  
3:00 소향씨어터 롯데카드홀  
입장료 | VIP석 14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문의 | (주)공연마루 1588-0766



강렬한 음악과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신비로운 무대 연출로 2013년 초연무대를 통해 대한민국 뮤지컬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뮤지컬 '레베카'.

스릴러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동명영화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레베카'는 사교로 죽은 전 부인

레베카의 어두운 그림자를 안고 사는 남자 막시 드 윈터와 죽은 레베카를 숭배하며 맨덜리 저택을 지배하는 집사 덴버스 부인, 사랑하는 막시와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덴버스 부인과 맞서는 '나(!!)'를 중심으로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가 진행된다.

막시 역의 류정한, 민영기, 엄기준, 송창의와 덴버스 부인 역의 김윤아, 차지연, 신영숙, 나(!!) 역의 김보경, 송상은 등 현재 뮤지컬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최고의 배우들이 완벽한 무대를 선사한다.

### Dancing 무용

### 2015 춤추는 남자들-전통춤판

일 시 | 11월 8일 일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춤추는남자들 집행위원회  
010-6657-7021



남자 춤꾼들의 강렬한 몸짓을 확인할 수 있는 '춤추는 남자들' 2015년 무대.

전통춤판으로 마련되는 올해 무대에서는 전 국립국악원 무용단 예술감독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차용무 전수 조교인 이진호, 부산시립무용단 부수석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승무 이수자인 장

래훈, 전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이자 중요무형문화재 태평무 이수자인 홍기태, 서울시무용단 수석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차용무 이수자, 경기도당국 전수자인 한수문, 국립국악원 무용단 안무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승무 이수자, 살풀이춤, 차용무 전수자인 최병재, 춤꾼이자 연출가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남기성 등 6명의 춤꾼들이 출연, 기량을 마음껏 펼쳐보인다.



## 2015 한일문화교류공연 어미꽃 세상을 품다

일 시 | 11월 15일 일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초대  
문의 | 서지영 010-3429-7588

한일 양국의 전통춤을 향유하며 계승발전시켜온 어머니 무용단인 부산의 어름무용단과 일본 쓰시마 요시히토회가 함께하는 2015 한일문화교류공연.

지난해 일본 쓰시마 교류센터에서 열린 2014 한일문화교류공연 '어미꽃 다시 날다'에 이어 올해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양국의 전통무용과 민속무용을 통해 양국의 우호를 다지는 무대를 마련한다.

### [프로그램]

어름무용단/아리랑춤 II, 도살풀이춤, 부채춤, 어미꽃의 정년, 태평무, 길닦음춤 등  
요시히토회/하나가사 온도, 국화와 도라지, 쓰시마 어정, 꽃의부채, 구르도무사, 노산부시등



## 유니버설 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일 시 | 11월 20일 금요일 오후 8:00,  
21일 토요일 오후 2:30, 6: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VIP석 10만원,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문의 | 영화의전당 780-6000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더불어 차이코프스키 발레 3대 명작으로 불리는 유니버설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지난 2013년 부산문화회관 공연 이후 2년만에 다시 부산을 찾는 유니버설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은 프티파의 원작을 각색한 바이노넬 버전을 바탕으로, 80명의 무용수들이 펼치는 신비하고 환상적인 무대와 호두까기인형과 생쥐의 실감나는 전투, 눈부시게 하얀 눈송이 요정들의 일사불란한 군무, 과거 나라에서 펼쳐지는 러시아, 스페인, 중국, 아라비아 인형 춤 등 아름다운 춤이 펼쳐진다. '호두까기 인형'은 지난 1986년 리틀엔젤스예술회관에서 초연된 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80만에 가까운 관객이 관람한 스테디셀러이다.

## Movie 영화

### 제1회 모퉁이관객영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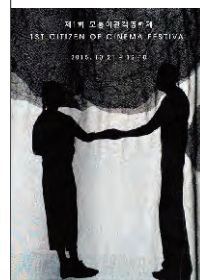
일 시 | 10월 22일(목)~12월 3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7:00 중앙동 모퉁이극장

입장료 | 무료(프로그램 참가비 5천원)

문의 | 모퉁이극장 010-3577-4970,

blog.naver.com/cornertheate



'영화의 시민들'인 관객들이 직접 만드는 제1회 모퉁이관객영화제. 모퉁이관객영화제는 관객이 영화제의 프로그래머가 되어 영화를 선정하는 것은 물론, 영화제의 기획과 준비, 실무 등 모든 과정을 관객들이 직접 준비하는 관객영화축제이다.

이번 영화제는 10월 22일 김민정 관객이 선정한 영화 '우리도 사랑일까'를 시작으로 29일 전인용 관객의 '항구의 일본 아가씨', 11월 5일 허문영 관객의 '화이트 히트', 12일 한지성 관객의 '데이킹 우드스탁', 19일 김영환 관객의 '슈퍼 에이트', 26일 강경선 관객의 '로마의 휴일', 12월 3일 이용관 관객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10일 윤필남 관객의 '바비라'까지 총 8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 허우 샤오시엔 전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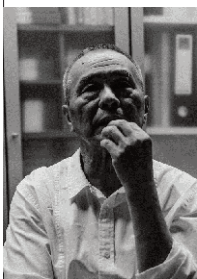
일 시 | 11월 13일(금)~19일(목), 11월 25일(수)~  
12월 3일(목)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상영시간 홈페이지 확인, 매주 월요일 상영없음)

입장료 | 일반 6천원, 경로·청소년 4천원

문의 | 영화의전당 780-6000, 6080,

www.dureraum.org



대만 뉴웨이브를 이끌며 대만영화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거장으로 자리매김한 허우 샤오시엔 감독의 전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허우 샤오시엔 전작전.

영화 속 개인과 가족사에 비추어 대만 현대사를 조명하고, 인물들의 일상 속에 사회

문제 의식을 투영시켰던 허우 샤오시엔 감독은 1980년 영화 '귀여운 여인'으로 데뷔한 후 1989년 '비정성서'로 베니스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며 세계적인 시네아스트로 자리매김 했다.

이번 상영전에서는 그의 데뷔작인 '귀여운 여인' 부터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화제를 일으킨 최신작 '자객 섭은상'까지 19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 예술의 전당과 함께하는 스크린 콘서트 가족오페라 '마술피리'

일 시 | 11월 30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초대(전화예매 필수)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5



우수 공연을 스크린을 통해 감상하면서 아티스트들의 생생한 표정과 몸짓은 물론이고 객석에서 볼 수 없는 무대 구성구석과 공연의 흥미로운 뒷이야기까지 만나 볼 수 있는 예술의 전당과 함께하는 스크린 콘서트 '마술피리'.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인 '마술피리'는 지난 7월 예술의전당이 2009년 '피가로의 결혼' 이후 6년만에 선보여 화제가 작품으로, 10대 이상의 카메라 앵글, UHD 고화질, 입체 서라운드 음향으로 영상화(SAC on Screen)되어 오페라극장 최고 등급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아티스트의 생생한 표정과 몸짓까지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 색깔을 입혀가는 무대 연출은 어린이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특히 모든 대사를 한국어로 처리하여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 Concerts 콘서트

### 더 보컬리스트 '이정&바다 가왕전'

일 시 |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5만원, 2층 4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5



질은 호소력과 소울 넘치는 보이스로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는 가수이자 예능과 시트콤에 출연하며 다양한 매력을 분출하는 만능 엔터테이너 이정과 폭발적인 가창력과 무대매너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요계의 디바이자 뮤지컬 배우로도 맹활약중인 바다, 두명의

보컬리스트들이 만드는 최고 감성의 무대가 펼쳐진다.

- 지휘/최선용
- 연주/리니아피우스오케스트라
- 찬조출연/그룹 에이텐션

Program Guide >>>

78th Jazz, 와인에 빠지다  
**열정적 음악의 섬 '라이슬라 보니따'**

일 시 | 11월 27일 금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R석 3만 5천원, S석 2만 5천원

문의 | 문화기획단 무대공감 623-0678



다소 생소하면서도 어려운 재즈라는 장르를 편하고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부산의 유일한 상설 재즈콘서트 '재즈, 와인에 빠지다' 78번째 무대.

다양한 색깔의 국내외 재즈 뮤지션들이 출연, 재즈보컬인 윤정의 해설로 진행되는 '재즈, 와인에 빠지다' 11월 무대에서는 퍼커션 조재범, 전호영, 피아노 염신혜, 베이스 이범석, 드럼 조득연, 트럼펫 유승철로 구성된 '라이슬라 보니따(La Isla Bonita)'의 무대가 펼쳐진다.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의 '라이슬라 보니따'는 차차차, 맘보, 볼레로, 삼바 등 여러 가지 리듬적 요소를 재즈와 결합시켜 '라이슬라 보니따'만의 감성으로 흥겨우면서도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Event 행사

ExhiPlay '살(the Flesh)'

일 시 | 11월 5일-6일 -금요일 오후 7:30,  
7일 토요일 오후 5:00 **비온드가라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예술집단 C 010-7300-3000



다양한 예술적 가치가 있는 기획, 전시, 공연 등의 공간 예술 및 시각예술의 발전을 위해 모인 예술기획집단 '예술집단 C'의 전시(Exhibition)와 공연(Play)이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 ExhiPlay '살(the Flesh)'. 작가 박주호의 회화 '밥'을 주제로 무용가, 연극인, 무대미술가 등 13인의 아티스트들과 관람객의 협업을 통한 콜라보레이션 작업인 '살(the Flesh)'은 고르고, 씻어 불려, 안친 후, 뜸 들여서, 담는다는 밥을 짓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 세상과의 만남에서 따뜻한 사랑과 하얀 희망을 그려본다.

• 참여 아티스트/김성은, 김수현, 김여진, 김영범, 박주호, 어머니 이성재, 이혜영, 전광표, 전성호, 타무라 료, 허성준, 황지선

무지크바움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

일 시 |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 기획 및 진행 / 손명균, 박형석

렉처콘서트 '해설이 있는 월드뮤직 음악감상회(13)'  
**인도음악과 African Pop**

일 시 | 11월 18일 수요일 오후 7:00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재1층

입장료 | 무료

문의 | 최정욱 010-3853-6634,  
cafe.naver.com/yefeel

• 기획 및 진행 / 손명균, 박형석

시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  
**시마당 제157회 시낭송회**

일 시 | 11월 24일 화요일 오후 6: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의 | 회장 안태봉 017-552-0626

Display 전시

스튜디오 지브리 입체건축展

일 시 | 9월 5일(토)-11월 29일(일)

부산시립미술관

입장료 | 일반 1만 2천원, 만 18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 1만원

문의 | 대원미디어(주) 747-9384

1985년 설립된 일본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건축물의 원화와 입체모형을 소개하는 스튜디오 지브리 입체건축展.

• 관람시간/오전 10시~오후 8시  
(오후 7시까지 입장가능, 월요일 휴관)

2015 오픈스페이스 배 아티스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7인의 참여작가전 'Diplopia'**

일 시 | 10월 17일(토)-11월 8일(일)

오픈스페이스 배

문의 | 오픈스페이스 배 724-5201

• 관람시간/오전 11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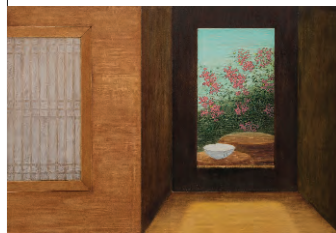
• 참여작가/김경희, 노수인, 박석민, 방수연, 윤수아, 이은지, 임봉호

김덕용 작품전 '결이 흐르는 공간'

일 시 | 10월 24일(토)-11월 26일(목)

소울아트스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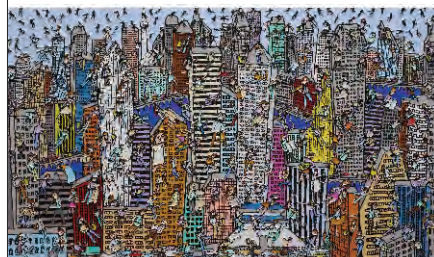
문의 | 소울아트스페이스 731 5878



신흥우 개인전 'Festival'

일 시 | 11월 2일(월)-11월 30일(월) 갤러리 아인

문의 | 갤러리 아인 747-2612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Embrace展**

일 시 | 10월 27일(화)-11월 15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백낙호 초대전

일 시 | 11월 9일(월)-11월 15일(일) 타워갤러리

문의 | 타워갤러리 464-3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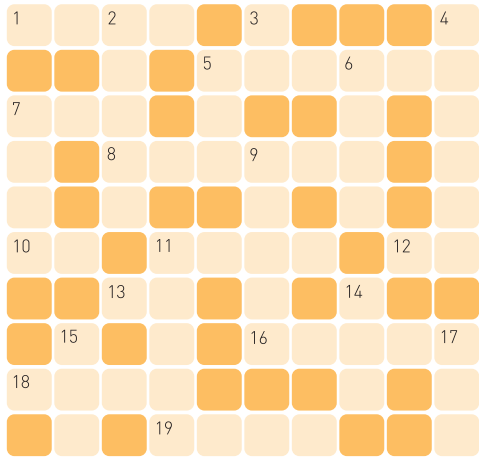
타워아트갤러리 기획

2015 자연의 음향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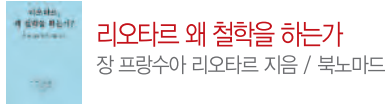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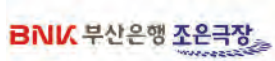
일 시 | 11월 23일(월)-11월 29일(일) 타워갤러리

문의 | 타워갤러리 464-3939

#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공간소극장 | 051-611-8518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문학동네 | 031-955-8869  
 옐로인 플라워 | 080-337-3370



## 지나호 정답



## 10월호 퍼즐 당첨자

### 가로열쇠

- 모차르트가 죽기 두 달 전에 완성한 징슈펠독일어로 서로 주고 받는 대사에 서정적인 노래가 곁들민속적인 오페라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오페라,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12월 4일과 5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 라이언 프랭크 비움의 동명의 동화를 스크린에 옮긴, 빅터 플레밍 감독, 주디 갈랜드 주연의 뮤지컬 현대지 영화. 회오리 바람에 합승! 오즈로 가게 된 도로시의 모험을 그린 작품이다.
- 김미로운 재즈와 밥 파시의 감각적인 인부가 돋보이는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브로드웨이 공연 역사상 '오페라의 유령'에 이어 2번째로 흥행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처음 공연된 유럽 오페라로, 오늘날까지 전 세계 관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베르디의 대표적인 오페라.
- 지난 2006년에 이어 2012년과 2014년 총리로 선출된 일본의 정치인. 2013년 아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롯해 중국과 한반도에 대한 과거의 식민지 침략에 대해 "침략의 정의는 학계에 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우익 정치가의 행보를 보여 중국과 한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 조선시대 장악원이 전라도 흑산도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중 흑산도 근해의 수산생물을 실지로 조사하고 채집한 기록으로, 수산동물 155종에 대한 각 종류의 명칭·분포·형태·습성 및 이용 등에 관한 사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남북전쟁에서 북군을 지도하여 점진적인 노예 해방을 이루었다. 게티즈버그에서 한 연설 중 유명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는 불멸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 러시아 태생의 화가이자 판화가. 러시아의 민속적인 주제와 유대인의 성서에서 영감을 받아 인간의 원초적 향수와 동경, 꿈과 그리움, 사랑과 낭만, 환희와 슬픔 등을 눈부신 색채로 펼쳐보였다.
-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는 대륙부의 총칭. 일반적으로 옛 프랑스령 식민지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3개국을 가리킨다. 이들 세 나라는 예전에는 모두 독립왕국을 건설하고 있었으나 19세기 후반 이래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다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을 되찾았다.
- 옛날 민속 인형극 박첨지놀음에 나오는 각시인형을 가리키는 말. 원래 '괴리의 얼굴 가면을 뜻하는 몽골어 'godok'에서 유래했으며, 현재는 의미가 확장되어 '뜻대 없이 조종자에 의해서 이리저리 움직여지거나 놀아나는 사람을 빗대어 쓰이기도 한다.
- 고전소설 '오도전'을 모티브로, 우리나라 공포영화 사상 가장 많은 수의 관객을 동원한 김지운 감독, 임수정, 문근영 주연의 영화.

### 세로열쇠

- 그리스의 종교가, 철학자, 수학자. 만물의 근원을 '수(數)'로 보았으며, 수학에 기여한 공적이 매우 커 플라톤, 유클리드를 거쳐 근대대까지 영향을 미쳤다.
-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시, 음악 및 예술 분야를 관장하는 아홉 여신들 중의 하나로, 작가, 화가 등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을 일컫기도 한다.
- '자유 무용'을 창시하여 현대무용의 어머니(개척자)로 불리는 미국의 무용가. 무용을 소수 전문가의 영역에서 대중의 영역으로 바꿔놓음으로써 '사람을 춤추게 하는 것은 영혼과 정신이지 기교가 아니다'는 '던카니즘(Duncanism)'을 유행시켰다.
- 음악을 중심으로 한 종합 무대예술. 대사는 독창, 중창, 합창 등으로 부르며, 서곡이나 간주곡 등 기악곡도 덧붙인다.
- 청나라 초기 구이저우성(貴州省)의 〇〇〇라는 거리에서 수수를 원료로 하고 밀누룩을 써서 일종의 소주를 양조한 것이 그 시초로, 그 후 개량을 거듭하여 지금은 중국의 국민주로 일컬어진다. 발효기간이 길어서 9개월이나 걸리며, 그 후 다시 2~3년 숙성 저장한다.
- 우랄산맥과 태평양 사이에 있는 북아시아 전체를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 대부분 지역이 러시아 연방에 속한다.
- 영화 '원스'의 영화감독 존 카니가 감독한 음악영화. 최근 한 음악사이트에서 조사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OST 곡으로 이 영화의 주제곡 '로스트 스타즈(Lost Stars)'가 1위를 하기도 했다.
- '오이스, 보이스, 사이소리는 캐치 프레이즈로 유명한 부산의 상징이자, 우리나라 최대의 수산물 시장.
- 신라 최초의 불교 순교자.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포교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바치고 순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올해 3월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하고 현재 FC 서울 소속으로 활동중인 축구선수. 축구선수 차범근의 아들로, 지칠 줄 모르는 체력과 빠른 스피드로 독일의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인 '이우토반', '차로봇', '차미네이터' 등 다양한 별칭으로 불리었다.
- 교통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만든 인체 교차로. '나간다'와 '들어간다'라는 뜻을 지닌 여간과 사람이나 짐승이 잘 지나다니는 길의 부분을 가리키는 말인 '목'이 합쳐진 단어로, 일반 도로에서 고속도로로 진출입을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 공간소극장

권유미(해운대구 해운대로)  
 김혜진(부산진구 백양관운로)  
 박경숙(연제구 연제대로)  
 양정은(사하구 승학로)  
 유혜영(수영구 연수로)

### 문학동네

김수현(금정구 오륜대로)  
 김지현(해운대구 송정1로)  
 박다운(영도구 변영길)  
 이성재(서구 대신공원로)  
 정미숙(동구 중앙대로)

옐로인 플라워 김종출(남구 지게골로)  
 꽃다발 증정권 최미숙(남구 분포로)

### 큰집

박소미(부산진구 월드컵대로)  
 박태화(사하구 오작로)  
 송희경(사상구 가야대로)  
 양봉규(해운대구 대천로)  
 조진희(부산진구 마천로)

### 조은극장

김진우(금정구 개좌로)  
 박지영(기장군 차성로)  
 이경옥(영도구 대평로)  
 임지훈(동구 진성로)  
 정희정(수영구 수영성로)

※ 생일, 결혼기념일 등 축하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두 분을 추첨해 꽃다발 증정권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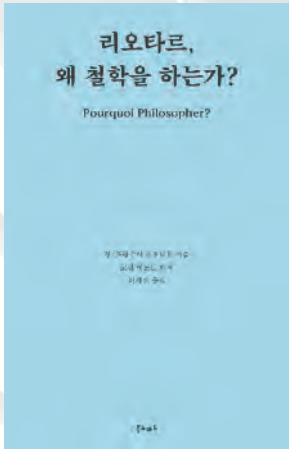
## New BOOK... 박현주 북칼럼니스트



### ❖ 백석우화 그리고 서른세 편의 시

이윤택 대본 구성, 최영철 시 엮음 / 도요 / 166p / 1만원

우리나라 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 백석이다. 백석의 삶을 박진감 넘치는 한편의 대본으로 구성하고, 백석 시의 진수를 보여주는 절창 서른세 편에 짧고 쉬운 감상 포인트를 붙여 엮은 책이 나왔다. 탄생 100년을 넘긴 시인 백석은 이제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시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외롭고 높고 가난하기만 해서 한반도의 여러 외진 곳과 먼 북방을 떠돌아 혹독한 유배지였던 삼수감산에서 마감되었다. 모국어로 구사할 수 있는 최고의 정점, 시인으로 품을 수 있는 연정과 비애의 정점에서 백석의 시는 터져 나왔다. 이 책의 1부는 백석의 문학과 삶에 대한 내용을 담은 대본이다. 2부는 백석의 시 서른세 편을 엮었다. 대본을 구성한 이윤택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극작·연출가이며 시인이다. 대성문학상, 동아연극상 등을 받았다. 백석 시를 엮고 그 감상 포인트를 짚어준 최영철 시인은 변방의 가치를 즐겨 노래해 온 시인이다. 그는 백석문학상, 이형기문학상 등을 받았다. 백석문학상을 수상한 시인이 백석의 시를 엮고, 그 감상을 안내한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끄는 책이다. 이윤택은 “백석의 시에서 모국어의 위대한 힘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다.



### ❖ 리오타르, 왜 철학을 하는가?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지음, 이세진 옮김 / 북노마드 / 176p / 1만 2천원

이 책은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가 소르본 대학 신입생들을 위해 준비한 강의를 책으로 펴낸 것이다.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는 소르본 대학에서 철학과 문학을 공부하고 1970년대 초부터 1989년 명예교수로 퇴직할 때까지 뱅센 대학과 생드니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다. 그는 이 책에서 이제 갓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위해 명료하고 쉬운 언어로 쓸모없는 또는 한물간 학문처럼 보이는 철학을 왜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리오타르는 플라톤, 프루스트, 라캉의 사상을 실마리로 삼아 철학의 의미를 검토한다. 두번째 강연에서는 우리가 철학을 하고자 하는 욕망의 기원은 무엇인가를 살핀다. 세번째 강연에서 리오타르는 소통에 대한 통념 혹은 편견을 비판하며 철학의 욕망의 의미를 검토하는 철학의 말함, 말하기, 말하는 행동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마지막 강연에서는 철학의 쓸모와 소용을 검토한다. 말하기가 그 말의 대상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행동 역시 마찬가지이고, 결국 그 근저에는 욕망이 있다고 정리한다. 그것이 바로 철학하는 이유이다. 철학을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쉽고 명료한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어서, 전공자가 아닌 일반 독자가 읽기에도 좋은 책이다.



### ❖ 나의 문화유산답사기8

유홍준 지음 / 창비 / 1만 8천원

우리나라 전체를 박물관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던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시리즈 8번째 책이 나왔다. 누적 판매부수만 370만 부에 이른다.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한국 인문서 최초의 밀리언셀러이다. 그의 시리즈가 출간되기 시작하면서, 독자들은 국토지리가 아닌 인물지리의 개념을 알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의 책을 들고 여행다운 여행을 해보겠다고 나선 사람들도 많다. 일본 편으로 잠시 무대를 옮긴 지 3년 만에 다시 국내로 돌아와 펴낸 이번 8권은 '남한 강편'이다. 부제는 '강물은 그렇게 흘러가는데'이다. 그 문구만으로도 유장하게 흘러가는 강이 펼쳐지는 듯하다. 영월에서 시작해 단양, 체천, 충주, 원주, 여주를 거쳐 한강을 향해 이어지는 유홍준 교수의 이번 답사기는 남한강 유역에 산재한 수려한 경관과 평화로운 강변 마을의 풍경, 각지의 문화유산에 얽힌 풍성한 이야기로 우리를 또다시 감탄하게 한다. 아득한 역사와 아름다운 풍광, 가슴 찡한 사람살이의 이야기가 어느 곳보다 몽클한 감동으로 다가올 것이다. 유홍준 교수는 남한강 유역은 아름다운 산과 강과 호수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어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임을 뽐낼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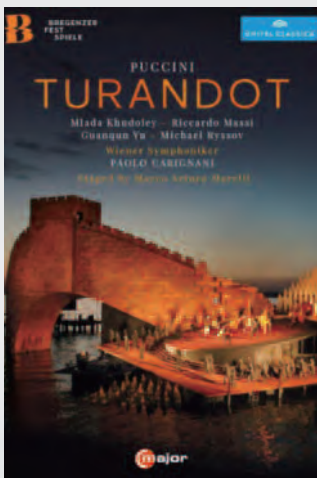
❖ **롤라 보베스코 '소나타와 트리오'**

비발디, 헨델, 코렐리 2대의 바이올린과 바스콘티누오 소나타/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3번  
 롤라 보베스코(바이올린)&크리스티안 바데아(바이올린), 베르테 데도야드(첼발로), 자코 겐티(피아노)  
 1972년 발매된 비발디, 헨델, 코렐리의 2대의 바이올린과 바스 콘티누오를 위한 소나타 녹음으로, 제2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안 바데아와 명 첼발리스트 베르테 데도야드의 반주가 일품인 음반이다. 프랑코-벨기에 악파다운 화려한 색채감과 보베스코 특유의 세련미가 돋보이는 연주로, 아날로그 시절 인기가 높았던 앨범이다. 보너스 트랙에는 프랑스 국립시청각 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던 1957년 6월 20일 방송녹음으로,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3번이 수록되었다. 1950~60년대 초 보베스코의 연주는 희소성이 매우 높는데, 특히 이번에 발매된 그녀의 미발표 방송 녹음은 58년 만에 최초로 공개되는 귀한 음원이다. 그녀의 남편이자 평생의 반주가였던 자코 겐티의 기품있는 피아노 반주로 35세의 보베스코가 들려주는 연주인데, 우수에 차있으면서 장대한 표현력이 구사된다. 1950년대 말, 당시 프랑스 국립방송의 녹음상태가 매우 좋아 생생한 음질로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3번의 숨겨진 명연주를 들을 수 있다. (전세계 600장 제작, 200장 국내 수입 한정 판매반)



❖ **그라페넥 한여름 밤의 갈라 콘서트**

엘리자베트 쿨만(메조 소프라노), 피오토르 베찰라(테너), 율리아 피셔(바이올린), 유타카 사도(지휘), 톤퀴스틀러 오케스트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그라페넥 성에서 지난 2007년부터 국제적인 야외 음악축제인 그라페넥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 성채의 정원에다 기하학적 형태의 지붕을 씌운 Wolken-turm(구름탑)이라는 야외무대가 이 페스티벌의 주 무대로, 독특한 형태의 지붕은 고풍스런 성채와 대비를 이루는 초현대적인 야외조형물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페스티벌의 주관 악단인 톤퀴스틀러 오케스트라는 페스티벌이 시작되기에 앞서 시민들을 위한 갈라 콘서트를 펼쳐왔는데, 2015년 6월에 펼쳐졌던 성대한 공연실황이 이번 영상물에 수록되었다. 2015년부터 상임지휘자를 맡고 있는 일본 출신의 지휘자 유타카 사도가 지휘봉을 잡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율리아 피셔가 사라사테의 두 작품 '카르멘환상곡', '전주곡과 타란텔라'를 연주하였고, 성악가 피오토르 베찰라와 엘리자베트 쿨만이 오페라 '카르멘'과 '삼손과 데릴라'의 주요 아리아와 빈 오페레타의 인기곡들을 노래했다.



❖ **푸치니 '투란도트' [한글자막]**

몰라다 쿠돌리(투란도트), 리카르도 마시(칼라프), 관쿤 유(류), 미하일 리소프(티무르) 외, 파올로 카리나니(지휘), 빈 심포니커  
 매년 여름 보덴호수에서 펼쳐지는 브레겐츠 페스티벌은 야외무대의 특성을 살린 웅장하고도 파격적인 무대로 오페라 애호가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2015년 여름 이 호수무대에서 처음 공개된 마르코 아르투로 마렐리 연출의 '투란도트'가 영상물로 출시되었다. 같은 프로덕션을 2년 동안 반복 공연하는 것이 이 페스티벌의 전통임을 감안했을 때, 이 영상물에 담긴 무대는 2016년 여름에도 다시 공연될 것이다. 마렐리는 칼라프를 푸치니의 또 다른 자아로 설정했다. 피아노 앞에서 작품을 공리하던 푸치니는 어느새 환상 속의 중국으로 빠져들어 간다. 거대한 만리장성이 무대의 배경을 이루고, 엑스트라들은 인민복을 걸친 병마용과 같은 이미지로 무대를 가득 메운다. 마린스키극장의 주역인 몰라다 쿠돌리가 카리나니 넘치는 투란도트를 열연하였고, 여러 유명 할리우드 영화들에 스타트맨으로 출연했던 독특한 이력의 테너 리카르도 마시가 칼라프를, 2008년 빈 벨베테레 콩쿠르 우승자이자 2012년 오페라리아 콩쿠르 2위 입상자인 중국계 미국 소프라노 구안쿤 유가 류를 노래했다.

# NEWS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아시아 오케스트라 심포지엄(AOS) 참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오는 11월 6일 대구에서 열리는 제1회 아시아 오케스트라 심포지엄에 참가한다.

대구시·대구시민회관이 주최하고 한국예총 대구시연합회가 주관하는 '제1회 아시아 오케스트라 심포지엄'은 독일 베를린 도이치 오케스트라, 호주 시드니 심포니 등 해외 4개국과 대구·경북심포니오케스트라, 챔버오케스트라, 윈드 오케스트라,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이 한자리에 모여 연주하고 학술교류를 펼치는 음악 제전이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11월 6일 대구시민회관 그랜드콘서트홀에서 수석지휘자 김범수와 첼리스트 배원의 협연으로 말러와 차이코프스키, 쇼스타코비치 곡으로 제1회 아시아오케스트라 심포지엄 무대에 오른다.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협연하게 될 배원은 카를스루에 국립음대 디플롬과 음악학 석사를 취득한 후 국제 콩쿠르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며 전문 연주자로서의 기량을 인정받았고 국내 차세대 스타로 자리매김해왔다.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 명창 미산제 수궁가 음반발매



부산의 대표 소리꾼으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박성희 명창이 미산제 수궁가로 부산에서는 최초로 판소리 음반을 발매했다. 미산 박초월제 수궁가는 유성준바디로 정광수-박초월-전정민-박성희로 이어지면서 서민 정서를 담은 순수함과 자연스러운 소리로 다듬어져왔다. 박성희는 이번 음반에서 사설이 와전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판소리의 특성을 고려해 올바른 가사로 정리하기 위해 여러 창본집을 비교하고 조사하는 등 사설(노랫말) 정리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법) 예능보유자 김청만이 고수를 맡은 이번 음반은 녹음작업부터 믹싱 및 마스터링 등의 모든 음반제작 과정이 부산에서 이루어진 것 또한 이채롭다.

박성희는 음반 발매를 기념하여 오는 11월 8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수궁가 완창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 이벤트

[11월 부산문화회관이 드리는 가을 선물]



## | 회원 가입 |

- 가입신청 : 전화 또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
  - 무통장입금 :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부산문화회관)
  - ※ 홈페이지 가입 : 인터넷(무료)회원 등록 후 마이페이지에서 정기회원 전환  
유료결제
- 방문신청 : 부산문화회관 관리동 2층 (예술단사무국 홍보팀)

## | 회 비 |

구 분	회 비	할인매수
골드회원	50,000원	4매
블루회원	30,000원	2매
그린회원(신설)	20,000원	1매

\* 단체가입할인 :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 | 관람권 예매 |

- 예매 : 전화 또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 무통장입금 : 부산은행 036-01-034848-7(예금주/부산문화회관)
- 수령 : 정기회원 카드 또는 예매확인증 지참

## | 회원 혜택 |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증 발급 우송(7일)
- 부산시내 공연장 정보를 담은 월간지 (예술예의 초대) 우송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정보 제공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5~30%)
- 부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기획공연, 정기연주회, 특별연주회 관람료 할인(10~30%)
- 예매 및 현장(당일) 관람권 구입시 할인(정기회원카드 제시, 입석 할인불가)
- 부산시내 각 공연장에서 열리는 외부단체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과 협의된 공연)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문화강좌, 시민예능교실 등)
- 부산시립예술단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가 있는 여행

## | 할인쿠폰발행 |

- 할인쿠폰발행 | SKY히늘안과, 공간소극장, 모차르트,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필하모니, 하나돈가스(센텀점), 새날한의원(광안점/해운대점) 메가박스(서면점), 안경나라(동래점), 옐로인플라워(대연혁신점)
- ※ 업체사정으로 변경 가능

## | 가입문의 |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홍보팀 051-607-3100, FAX 051-607-3109
- 평일 09:00~18:00(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및 공연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b>음료 10%할인</b> 부산문화회관 앞 기림빌딩 1층 Tel. 051)622-1456</p>	 <p>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b>커피 10%할인</b> (커피에 한함) Tel. 051)623-0772</p>
<p>Since 1981 <b>philharmony</b> 필하모니</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b>식사 10%할인</b> 부산문화회관 앞 기림빌딩 2층 Tel. 051)626-2592</p>	 <p>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b>식사 5%할인</b> Tel. 051)624-2270</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시 <b>평일 3천원, 주말·공휴일 4천원 할인</b> (회당 2매/조조, 심야, 3D 제외)</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b>옐로인 플라워 꽃 상품 10% 할인</b> 부산문화회관 입구 본점 080-337-3370 대연혁신점 051)627-1253</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시 <b>디럭스 객실</b> 정상가 300,000원 → 할인가 99,000원 (세금포함/조식불포함/성수기 기간 제외) 예약문의 : 051)678-1000</p>	 <p><b>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b> Tel. 051)752-9811(광안), 051)747-9812(해운대)</p>
 <p>부산문화회관 &amp; 굿월치과병원 협약기념 <b>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b> 덕천   051)330-6000 하단   051)209-6015 서면   051)606-6000</p>	 <p><b>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b> Tel. 051)850-0500</p>
 <p><b>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b> Tel. 051)929-5000</p>	 <p><b>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b> Tel. 051)819-0173</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b>상품 20%할인</b> (일부품목제외) 안경나라(동래점) 051)505-8987</p>	





부산시립무용단 73회 정기공연

예술감독·총괄안무 : 홍경희 / 극작·연출 : 유희성 / 안무 : 이태상



新


월(月) 인(人) 천(天) 강(江)

2015. 11. 19(목) - 20(금) 19: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제작 부산광역시립무용단 문의 607-3107(홍보팀) 607-3154(공연운영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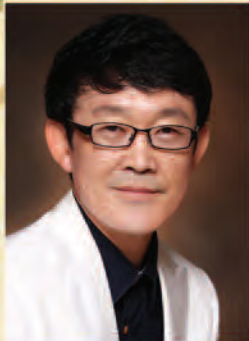
예매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http://culture.busan.go.kr) 관람료 R석 10,000원 S석 5,000원

# 깊은 가을 국악의 향기

2015. 11. 13 (금)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객원지휘 계성원



객원지휘 이정필

## 프로그램

### 1부 | 객원지휘 : 계성원

국악관현악 [남도아리랑] / 작곡 : 백대웅  
국악관현악 [춤, 바람, 난장] / 작곡 : 원일  
국악관현악 [공무도하가] / 작곡 : 김성국(부산초연)

### 2부 | 객원지휘 : 이정필


국악관현악 [판놀음 II] / 작곡 : 이준호  
국악관현악 [광야의 숨결] / 작곡 : 강상구  
국악관현악 [방향] / 작곡 : 이경섭

주 최  부산광역시

주 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입 장 료 A석 10,000원 B석 5,000원

공연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5(홍보팀) 607-3143(공연운영팀)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